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범죄 여부 상관없이 불체자면 무조건 체포

국토안보부, 신규 이민자 단속 가이드라인 발표 모든 것은 이민자 탓, 불법이민자와의 전쟁 선포 이민단속국 직원 1만명 충원, 국경요원 5천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의 전쟁에 나섰다. 트럼프는 미국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견, 체포, 추방하기 위해 연방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21일 국토 안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전 날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했던 메모 초안이 공식화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민자의 범죄에 대해 보도하고 지방 경찰을 이민단속경찰로 등록시킨다. ▶이민자들



트럼프는 미국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견, 체포, 추방하기 위해 연방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권리를 박탈한다. ▶새로운 감금 시설을 건축한다. ▶난민을 받지 않는다. ▶추방을 가속화시킨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새로운 이민자 단속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트럼프는 신규고용 국경수비요원 비용, 불체자 감금시설 건립비용, 국경 담장 건설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불법이민자들을 일자리를 뺏아가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각종 웹페이지 수해로 연방정부 세금을 축내는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덮여 썬데이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데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정책변화로 수백만명의 불체자들은 체포 추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민 제한을 옹호하는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 대표는 “메시지는 이민법이 다시 활성화 됐다”라는 것이라며 반겼다. 그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더 이상 2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차범죄는 안전벨트 위반처럼 그 죄로 인해 차를 정차시키거나 체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대통령은 이민 단속관들의 “족쇄를 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미국)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2면으로 계속

줄리아 라우더 대표 인터뷰

인가취소 우여곡절 CSI "인가 문제 없다"

줄리아 대표, ACICS로부터의 인가 재 취득 ACICS의 인가자격 박탈 이후 현재 소송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ACICS로부터의 인가 취소 사태에 휘말렸던 CSI(Computer Sysytems Institute)가 2016년 10월 올스톤 지역에 학교를 새롭게 세웠다. 인가 취소 문제가 있다면 주춤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CSI는 오히려 올스톤 지역에 어학원을 확장 개설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긴 것이었을까.

문제는 12월 다시 발생했다. 미 교육부가 인가 기관인 ACICS(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s)의 인가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방문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SEVP)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학교가 다른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상당수 한인학생들은 여전히 영어 및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항공권 \$850~

KOREA JAPAN PACKAGE

한국방문길에 도교여행도 즐긴다!
왕복항공권(한국형 포함)
도쿄 네 호텔 숙박, 한국 공항리무진버스, 도교여행권

\$1,8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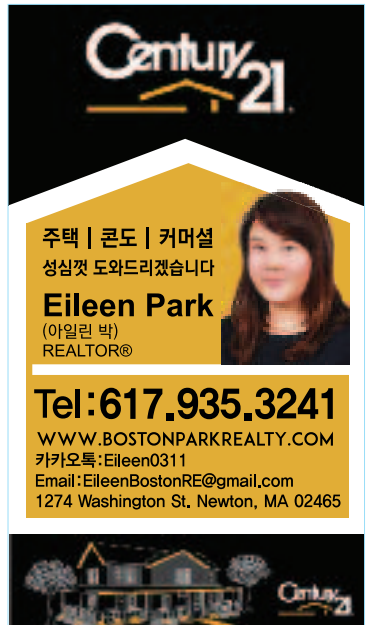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ACLU, 베이커 주지사 ICE와 주 파트너십 단절 요구

주지사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단절 이유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예의 주시하고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시민자유연맹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게 주와 이민 단속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287 (g) 프로그램은 주 또는 타운 경찰을 세관 및 이민단속 작전을 위해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87프로그램하에서 주와 카운티 경찰들은 이민 단속국 경찰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위해 훈련받는다. ICE와의 협약에 따르면 훈련을 받은 주 경찰들은 지역 경찰서에 감금된 누구나 미국내 거주 권리에 대해 의심스러운 이민자인 경우 심문을 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프로그램은 또

한 지역 경찰들로 하여금 이민사범 처리, 이민법 위반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 구류 그리고 이민자들의 수송들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

매사추세츠 교화부, 브리스톨 카운티 웨리프부서, 플리머스 카운티 웨리프부는 현재 이민단속국과 협약하에 이민자들을 감금토록 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의 대변인 윌리엄 피트맨은 성명서를 통해 베이커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양당합의 하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주정부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좌) ACLU의 법률 디렉터 매튜 시걸

트럼프 대통령 이민자와의 전쟁 시작

▶▶1면에 이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 라며 신규 이민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들 중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우선 추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민단속요원, 세관원, 국경수비요원 등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신규 행정명령 하에서 이민단속국의 단속대상에서 더 이상의 예외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모든 이민법 위반은 체포, 감금, 추방까지 이뤄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추방에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내용을 속여 유죄를 받거나 웰페어 수혜 관련 프로그램을 남용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 정책에는 신속추방이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입국한지 2주 이내인 밀입국자만 신속 추방했으나 이제는 미국 입국 2년 이하로 어디서든지 밀입국자들은 신속추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내 1천1백만명이나 되는 불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감금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운나쁜 이민자들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은 불체자들을 더욱 움추려 들게 만들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이번 정책은 많은 주와 이민자 피난처도시 등에서는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등은 경찰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커뮤니티안전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이민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민단속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이민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법은 2009년 1월 부시 행정부 마지막 날에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 수집 보호법이 설립됐었다. 이에 따라 학생, 임시취업자 등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의료, 법률,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국토 안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행위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끝내고 좀더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법적 준비작업을 마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토안보부가 트럼프의 이민자 최대 단속 약속에 따라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절차와 대폭 다를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 총장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세부지침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힐리 검찰총장, 트럼프 이민추방정책 다시 생각하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 총장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세부지침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성명서를 통해 힐리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대규모 추방계획은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수익달리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할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연방요원들은 위험한 범죄자들의 추방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왔다” 고 지적했다.

힐리 총장은 “트럼프 정권이 과거

의 현명한 정책을 버리고 범죄 경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하겠다고 하고 있다” 고 말하고 “이민자들과 신뢰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어둠으로 숨도록 강요당할 때 발생하는 피해도 안다” 고 밝혔다.

힐리 총장은 “트럼프의 잘못된 이민정책을 재고하고 두려움과 혼란을 퍼트리고 신뢰를 잠식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 을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하원 '피난처 주'법 논의

안전커뮤니티법, 트럼프 이민단속 방지 주법 채택 시 연방정부 공식지원 중단 주지사 법안 서명 가능성 극히 낮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 하원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22일 트럼프의 대대적 이민단속에 반대하는 “안전커뮤니티법(Safe Communities Act)을 논의했다.

안전커뮤니티법은 매사추세츠 주를 피난처 주로 만드는 법으로 이민법으로 인해 감금된 이민자들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고 주 경찰 또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난민 및 이민연합(MIRA) 등의 이민옹호단체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주지사에게 안전커뮤니티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는 소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법을 지지하는 경우 각종 연방보조를 잃게 된다. 이 경우 주

정부는 매스헬스 등 아주 핵심적인 사업의 재원 조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강경 이민단속 보다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로 당선된 후 주 경찰의 이민단속국과 협력해 훈련하는 287 (g) 프로그램을 되살린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드벌 패트리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바로 폐지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안전커뮤니티법에 서명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다만 여타 레드 스테이트처럼 이민단속에 적극적이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이민단속을 일부는 허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매사추세츠 주 이민자들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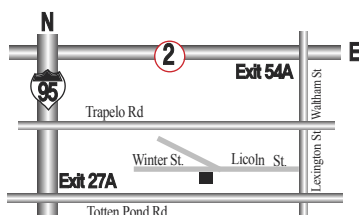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신학원 선교의 밤 공개강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Boston Nehemiah Institute(BNI))은 3월 11일 저녁 7시 한국 기독교 연구의 대가인 옥성득 UCLA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를 초청 제2회 선교의 밤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1876-1910"라는 주제로 여기서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중국 개신교, 한국 종교들이 만나 토착적인 한국적 개신교가 형성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개혁의 과제를 토의하게 된다.

옥 박사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보스톤 대학교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세계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영어권에서 한국 기독교 연구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저술활동과 강연으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교회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보스톤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인 다나 로버트(Dana Rober)교수는 옥성득 박사를 Korean Studies(한국학) 분야에 있어 가장 앞서 가는 학자라고 소개할 만큼 현재 한국과 미국 전역에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Boston Nehemiah Institute(BNI))은 3월 11일 저녁 7시 한국 기독교 연구의 대가인 옥성득 UCLA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를 초청 제2회 선교의 밤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서 인기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간에 BNI 선교원에서 파송한 이연승 박사의 Haiti HIM(Heaven In Me) Seminary 교수 사역 보고도 곁들여진다.

BNI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한국 기독교의 기원을 돌아보고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함

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BNI는 3년 전에 평신도 신학교육 및 선교를 위해 세워진 초교파 기관으로 신학교육을 담당하는 평신도 신학원과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일시 및 장소: 3월11일 오후 7시,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3월 4일 토요일 뉴햄프셔 알바니 소재 초코루아 마운틴(Mt.Chocorua, 4312ft)으로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산행은 Chamney Falls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왕복 산행 거리는 7.6 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5시간이다. 난이도는 3.5로 보통이다.

겨울산행이니만큼 준비물은 트레킹 폴스, 아이젠 (microspikes or Crampons)이 필수이다. 이외에도 배낭, 등산화착용,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고글, 스틱, 식수, 간편

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올스틴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3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다.

산행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A,B,C중 원하시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1절 기념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3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프로비던스 소재 생명의길 장로교회에서 98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우영주 목사를 초청해 <3.1 운동 정신의 계승과 이민 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엄성준 총영사도 참여해 격려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동해 (East Sea)" 동영상도 상영한다. 행사후에는 간단한 다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간 : 2017년 3월5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 생명의 길 장로교회, 262 Academy Ave. Providence, RI 02908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미니천녹삼
2병 증정
7set 한정

\$70 상당 선별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음으로 누리세요.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면역력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 ✓가뭇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모 주문후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 중, 일 전통 악기가 보스톤에서 만난다

브랜다이스 대학교 문화교류 레지던시

동아시아 3개국 전통 악기의 만남 - 판 프로젝트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악기들과 음악 그리고 이들이 만나 펼치는 새로운 음악이 소개된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문화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중일의 전통악기 연주자들을 2월 27일부터 3월 4일

까지 5일간 보스톤으로 초청, 여러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콘서트를 청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은 판 프로젝트 앙상블(PAN Project Ensemble)이라는 이

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다. 한국의 가민(피리, 생황, 태평소), 심운정(장구, 북), 일본의 카오루 와타나베(시노부에, 노칸, 타코코), 중국의 임치에 왕(얼후)과 미국의 제프 로버츠(중국 구친, 전자음악) 등이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브랜다이스 대학 주디스 아이센버그(Judith Eissenberg) 교수가 이끄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국의 국악을 주제로 레지던시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3개국의 음악과 뉴미디어의 만남을 통해 더욱 폭 넓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 프로젝트의 이름은 한국의 판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큰 판을 벌리는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판 프로젝트는 동아시아의 전통음악이 함께 모여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전통음악을 교류하며 각기 출발한 음악으로부터 성장하는 아이디어를 실체화 한 것이다.

제례 음악에서부터 극장용 음악까지, 전통적인 요소로부터 현대적인 요소까지, 그리고 즉흥 연주와 서양

판 프로젝트 레지던시 수업 일정

- 2월 27일(월):
 - 오전 11:00- 11:5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비교 인류학 입문
 - 오후 1:00-1:5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음악에서의 모험 및 실험
 - 오후 3:30-4:5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현대 중국
 - 오후 5:00-6:20 우스단(Usdan) 인터내셔널 라운지 : 명시대의 예술
- 2월 28일(화):
 - 오전 11:00-12:2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국제적 맥락에서의 중국 근대화
 - 오후 2:00-3:2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월드 뮤직
 - 오후 3:30-4:50 올린 상(Olin Sang) 센터 101호 : 동아시아: 19세기부터 현재까지(중국과 일본)
- 3월 1일(수):
 - 오후 12:00-1:00 만델 센터 에이트리움 : 미니 콘서트
 - 오후 3:30-4:5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고급 작곡법
 - 오후 7:00-9:00 슬로스버그 뮤직 센터 212호 : 즉흥연주법
- 3월 2일(목):
 - 오후 1:00-1:5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국제학 입문
 - 오후 2:00-3:2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월드 뮤직
 - 오후 5:00-5:50 슬로스버그 212호 : 한국 문화 입문
 - 오후 6:30-7:50 슬로스버그 212호 : 초기 일본 현대 문학의 세계
- 3월 3일(금):
 - 오전 9:00-10:00 월덤 케네디 중학교 방문 연주
 - 오전 11:00-12:50 보스톤 컨서바토리 솔리(Scully) 홀 : 실내악 수강생 대상 프레젠테이션
- 3월 4일(토):
 - 오후 7:00-7:4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콘서트 해설: 제프 로버츠
 -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 음악과 & 동양학과 교수
 - 오후 8:00-10:00 슬로스버그 리사이틀 홀 : 월드 뮤직 콘서트: Across East Asia - The PAN Project (콘서트 후 리셉션이 있습니다)



음악의 작곡 기법 및 멀티미디어 기술까지 모두 포함된, 문화와 시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콘서트는 3월 4일(토) 오후 8시에 슬로스버그 뮤직센터(415 South St. Waltham, MA)에서 열리며 티켓은 학생 \$5, 시니어(55세 이상) \$15, 일반 \$20로 미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콘서트 전에는 7시부터 캐나다의 알버타 대학교에서 음악과 동양학을 가르치는 제프 로버츠(Jeff Roberts) 교수의 해설이 진행된다.

또한 브랜다이스에서 5일동안 진행되는 관련 수업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강의이다.

한미예술협회는 브랜다이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MusicUnitesUs의 활동을 해마다 후원해 왔으며, 올해에도 홍보 및 리셉션 일부를 지원한다. 강의와 콘서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musicunitesus.info>)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인가취소 우여곡절 CSI “인가 문제 없다”

▶▶1면에 이어서

직업학원인 CSI에 재학중이다. 인가와 관련해 질문해도 CSI 직원들은 “새로운 인가기관에 인가신청을 했으므로 문제없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궁금했다. CSI의 줄리아 라우더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아야 했다. 특히 학생들의 이민신분이 이 학교가 발행하는 F비자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줄리아 라우더 CSI 대표는 보스톤 코리아의 과거 보도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스톤코리아와 직접 대화해 인가관련 문제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스톤코리아는 ACICS에 CSI인가 취소 재심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몇차례 결과통보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더구나 인가기관인 ACICS가 인가자격을 취소당했으니 CSI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중요했다. 이 같은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인터뷰가 성사됐다.

2월초부터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줄리아 라우더 대표와 현재의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의 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CSI을 통해 비자변경을 신청했다 각각당한 한인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보스톤코리아는 현재의 인가문제와 비자신청시 불이익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질문했다.

CSI의 인가상황에 대해서 줄리아 라우더 대표는 상세하고 거침없이 답변했다. 인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신뢰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법적분쟁 과정에는 여전히 인가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는 것이 주된 답이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은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능하면 가감없이 인터뷰 내용을 기재한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묻겠다. ACICS가 교육부로 인가자격을 박탈당했다. CSI는 아직도 ACICS에 재심을 신청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ACICS의 인가 자격 취소는 어떤 의미인가?

▶ACICS의 인가 자격은 2016년 12월 12일 취소됐다. ACICS는 연방법원에 명령증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심리는 올해 2월 21일 열린다. 승소하면 인가 자격이 복귀된다.

CSI는 ACICS의 인가를 아직 보유하고있다. CSI는 2016년 9월 재심 요청을 했고 다시 인가가 재승인됐다. 10월 통보받았다.



CSI 대표 줄리아 라우더

-교육부의 ACICS 인가 자격 취소 결정후 SEVP는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혹 다른 인가 기관에 인가를 신청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른 인가 기관에 인가를 신청하고 있다.

-한 어학원에 따르면 인가 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고 들었다. 일반적인 인가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 18개월 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나?

▶인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2-18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ICE SEVP가 그 정도의 여유기간을 준 것이다. HLC 같은 일부 인가 기관은 약 5년이 걸리기도 한다.

-CSI가 인가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ICE는 분명하게 학교들은 결코 국제학생들을 받아들인데 인가(Accredited)받지 않더라도 SEVP가 인증(Certified)할 수 있다고 밝혔다. CSI는 ESL 코스에 다니는 학생들도 신분에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인가 기관에 인가를 신청 중이므로 계속 재학해도 무방하다.

CSI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CSI학생들의 교육과 학생 비자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재확인할 것이다. 현재 약 100여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해 스태프들에게 질문할 것을 환영한다. CSI는 2개 주에 30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과 이들의 신분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다.

-CSI 재학했던 한 학생이 H-1B 비자를 신청했던 과정에서 M1 코스를 이수한 학생에게 F-1비자를 발행했다며 비자 변경을 불허한 경우가 있었다.



▶CSI는 M1및 F1 학원으로 승인 받았지만 모든 CSI 코스는 F1비자 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학원에 다녔던 학생중 30명이 H-1B비자를 받았다. 많은 수의 H비자가 발급 거부당한다. 학생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며 이민국에 그들이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H-1비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변호사가 신청한다.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학생 또는 졸업생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제공해달라는 모든 서류는 우리가 제공했다.

우리는 학생의 변호사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어떤 기관에 대응하더라도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왔다. 학생의 비자가 기각됐다면 변호사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민국이 계속 CSI의 학생비자 문제 삼는다면 CSI가 이민국에 직접 접촉할 의사는 없는가?

▶우리는 (비자)신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민 변호사들과 일할 뿐이며 변호사가 요청하면 절대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이민국 같은 곳은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신청자가 거부당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모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거부당한 학생이 있다면 우리를 찾으라고 전해달라.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 그러나 이민국과 같은 제 3기관의 결정에는 결코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멘트 할 수 없다. 결코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질문하겠다. ACICS가 2월 21일 심리에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서 다시 인가기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가가 없는 상황일텐데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추후 비자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나?

▶첫째, 기술적으로 서브인가기관으로 CHEA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향후 ACICS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지위에 대한 교육부에 법적 절차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인가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이것이 인가기관이 자의견 타의견 인가 자격을 잃은 것이 처음이 아니다. ICE는 새로운 인가기관을 찾도록 18개월을 주었다. 이 의미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과 학교가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인가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신규등록하는 ESL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냐?

▶그들은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 ESL코스는 쿼터에 한 번씩 있다. 따라서 한 학기를 들어도 되고 더 들 수도 있다. 우리는 학생들과 대화해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30년간 교육을 진행해온 학교다. 우리가 정말 견고한 학교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자. 새로운 인가를 받지 못하고 ACICS도 소송에서 졌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을 안전하게 트랜스퍼할 계획인가?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우리 학생들은 언제든지 트랜스퍼를 원하면 허용한다. 매 분기마다 학생들을 트랜스퍼한다. 절대 이를 막지 않는다. 또한 학생들은 결코 기회를 잃지 않는다. 이민국은 비록 구두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가 신청 중이면 18개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부는 다른 ESL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비자 승인, 이민국의 들쭉날쭉한 결정

이민국 CSI의 일부 F코스를 직업학교로 판단 자세한 설명담은 답변서 제출해야 비자 승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이민국의 비자 승인은 운칠기삼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같은 신청서를 두고도 다른 결정이 나오는 곳이 이민국이기 때문이다. CSI 줄리아 라우더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CSI를 다녀서 이민국 비자변경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면서 이 같은 점은 두드러졌다.

첫번째 케이스는 CSI에서 F1비자를 받고 경영보조직업(Administrative Assistant Professional) 프로그램 코스를 밟았던 학생이 신분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민국은 경영보조직업 코스는 직업학교(M-1)의 과정인데 F1 신분으로 이수했다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다(사진 1).

흥미로운 점은 CSI에서 같은 과정을 밟았던 2명은 모두 비자가 발급됐다. 줄리아 라우더 대표도 CSI의 모든 과정은 F1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케이스는 CSI에서 F1비자를 받고 비즈니스와 소셜스킬(Business and Social Skill) 프로그램 코스를 밟았던 학생이 신분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민국에서는 또 다시 비즈니스와 소셜스킬 과정은 직업학교(M-1)의 프로그램으로 F-1을 가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학생비자 요건을 유지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학생이



(사진2) 학교는 아주 간단하고 원문적인 답변을 발급했고 이 자료를 보냈던 학생은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사진3) 변호사가 재차 학생을 통해 서류를 요구하자 학교는 자세한 설명 편지를 보냈다. 이 학생의 케이스는 성공해 비자가 발급됐다

학교측에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는 아주 간단하고 원문적인 답변(사진2)을 발급했고 이 자료를 보냈던 학생은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세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CSI에서 F1비자를 받고 비즈니스와 소셜스킬(Business and Social Skill) 프로그램 코스를 밟았던 학생이 신분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민국에서는 또 다시 비즈니스와 소셜스킬 과정은 직업학교(M-1)의 프로그램으로 F-1을 가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학생비자요건을 유지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보냈다. 변호사의 요청에 학교는 지난 답변과 똑 같은 답변서를 발행했다. 변호사가 재차 학생을 통해 서류를 요구하자 학교는 자세한 설명 편지(사진3)를 보냈다. CSI는 I-17 학교로 승인 받아 F-1과 M-1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실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의 케이스는 성공해 비자가 발급됐다.

세가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국은 직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이름의 코스를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민국 심사관들은 제동을 걸었고 학교측의 자세한

답변이 주어지는 경우 비자변경이 승인됐다.

그러나 케이스 자료를 제공한 한 변호사는 두번째 케이스에서처럼 CSI가 불성실하게 답변해 결국 비자가 기각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CSI 재학 학생들은 추후 비자변경이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에 사진 3과 같은 자세한 설명편지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자산보호, 불매권 양도, 재무 조정
신용회수, 분쟁 및 조정
고용사도 상담, 계약서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70%
부동산 매각/리스 PM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자산보호신원외국인에
드리는 기본 서비스**

주거비밀계좌 및 계좌
과세 신고/조정 서비스(1년)

신용회수, 부동산, 유언장, 상속,
자문 및 변호사료, 무료, 무료, 무료 및 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300만 원

Call Us Today! 김 우석 변호사, Michael Kim Esq.

장우석 변호사 변호사사무소 김 우석 변호사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88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 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화제의 신형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3월 발매

집에서 TV와 연결, 밖에서는 TV없이 플레이, 파티용으로 매력
작년 구글 전자제품 검색순위 5위, 실적악화 닌텐도 구세주 될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새로운 물건이 나타났다.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이하 콘솔) 후발 주자인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소니), 엑스박스 시리즈(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점유율을 빼앗긴 닌텐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콘솔을 발매한다. 이 콘솔은 작년 한해 구글의 전자기기 관련 검색 순위 5위를 기록했고, 12월에는 지미 팰런의 투나잇 쇼에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다음달 3월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 라는 이름의 새로운 콘솔을 발매한다.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초의 하이브리드라고 불리게 될 이 콘솔의 특징은 휴대용 게임기와 가정용 게임기가 결합한 형태라는 것이다. 기존 비디오 게임기 중에서 TV에 연결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제품은 있었지만 거치형인 가정용과 휴대형이 통합된 기기는 없었다.

거치형과 휴대형의 통합으로 인해 생긴 한 가

지의 특징은 구글의 모듈형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 처럼 조립이 가능한 것이다. 콘솔기기는 화면과 메인 프로세서, 전원과 볼륨을 담당하는 본체와 TV와의 연결과 충전을 담당하는 독(Dock), 그리고 게임패드를 하나로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게임패드는 닌텐도 스위치의 핵심이다. 두 개의 분리된 조이패드에 상하에 각각 스틱과 네 개의 버튼이 달려있는데, 혼자 게임을 할 때는 독의 양 옆에 조이패드를 조립하여 한 개의 조이패드처럼 사용하다가 둘이서 게임을 할 때는 독에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조이패드로 조종을 할 수 있다. 또한 휴대용으로 게임을 하고 싶을 때는 두 개의 조이패드를 본체 양 옆에 조립하여 휴대용 게임기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이패드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나누면 두 명이 함께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물론 추가로 조이패드를 연결 할 수 있어 파티용 게임으로 손색이 없다.



미국에서 3월 3일에 발매 예정인 닌텐도의 새로운 콘솔인 '닌텐도 스위치'는 29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조이패드는 기존 닌텐도 제품인 Wii나 Wii U의 게임패드처럼 모션인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리오 카트나 마리오 올림픽처럼 기기를 흔들거나 기울이는 방법의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게임패드에 익숙지 않다면 PS4나 XBox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컨트롤러도 별개로 판매(\$69.99)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복잡한 슈팅, 액션이나 스포츠 게임류의 진행도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시 전부터 높은 기대와 호평을 받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지만 애초부터 휴대용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콘솔인 탓에 기계 성능 자체는 라이벌인 PS4나 XBOX ONE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닌텐도 Wii가 파티용 게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었지만 기기 성능에 있어서는 전작인 게임큐브와 큰 성능 변화가 없고, 차기작 Wii U역시 Wii에서 큰 성능 변화가 없어 외면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고성능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FPS나 스포츠게임 등의 유저들에게 큰 주목을

끌기 어려워 보인다. 런칭소프트웨어가 9종밖에 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닌텐도 Wii U의 경우에도 콘솔 발매와 동시에 30종의 게임이 발매된 것과 비교하면 콘솔이 발매되자마자 할 수 있는 게임의 수는 너무 적다. 발매 소프트웨어는 인기 소프트웨어인 '젤다의 전설'을 비롯해 '슈퍼 붐버맨', '뿌요뿌요 테트리스' 등이며 '저스트 댄스 2017' 이 3월 중, '마리오 카트'가 4월 28일, '소닉' 5월 31일, '슈퍼마리오'가 홀리데이 시즌 중 발매 될 예정이다. 기본 언어 구성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9개 언어이며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제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홍콩에서 동시발매 할 예정이며, 한국은 아직 발매 예정이 없다. 닌텐도 콘솔의 연이은 실패 이후 최근 '포켓몬 고'와 '슈퍼마리오 런' 등으로 반등을 노렸던 닌텐도가 과거 패미컴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tshunne@bostonkorea.com



NBC의 인기 방송인 '지미 팰런 투나잇 쇼'에서 진행자 지미 팰런은 작년 12월 본인의 방송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직접 시연했다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핵심적인 메이크업과 디자인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Blessing
Channels**
Nail Academy

가장 수강생 만족도 높은 과정 (100% 성공률)

"성공적인 많은 내일 앞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월 10일 - 11일
> 개인용 Toolbox
> MA주내 100개 이상 사육장 유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herine.com
주말 미술교실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수업 커리큘럼 100%
가장 인기 있는 미술 교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스터까지 제작
월요일 및 월요일만 개월
수업 시간: 10:00-12:00 (월요일 수업)
(단, 1월 10일과 11일 수업 없음. Email: kashira@theartclass.com)

78 Millis Street #103, Millis, MA 01901
bena76@gmail.com

문의 및 예약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MLB 한국인 선수 2017년 전망 - 아메리칸 리그 편

김현수 타격 머신 이면엔 2년차 징크스, 플래툰, 수비불안 극복해야
추신수 부상 악령 떨쳐내고, 박병호 자신감 회복 선결 과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해 내셔널 리그 코리안 리거 전망에 이어 이번주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속한 아메리칸 리그의 코리안 리거들을 만나본다. 레드삭스와는 리그가 다른 내셔널 리그와 달리 아메리칸 리그는 다른 지구의 팀이라 할 지라도 한 번은 펜웨이 파크를 찾는다. 김현수의 소속팀인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레드삭스와 같은 리그, 같은 지구인 관계로 3번이나 펜웨이 파크를 방문한다. 아직 메이저리그 승격은 미지수이지만 올해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1루수 최지민 선수가 있고, 한국계 선수로는 우익수 롭 레프스나이어 (한국명 김정태)도 있다. 이번주는 작년에 MLB 25인선 발로스터에서 활약했던 아메리칸 리그의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시즌 전망과 목표를 알아보기로 한다.

[앞음] 김현수 (볼티모어 오리올스), 2년차 징크스 없이 주전으로 도약한다

최상의 시나리오 : 작년과 같은 타율과 출루율, 발전된 수비능력과 주루능력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시범경기 부진이후 마이너 강등 이야기가 오갔지만 김현수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사용하며 감독과 언론의 눈 밖에 났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제한된 기회속에서 경이로운 생존력을 보이며 MLB에서 살아남았다. 시즌 들어 살아난 그는 6월이 되자 타격 기계로 변모했다. 시즌 305타수 타율.302, 출루율.382, 6홈런, 22타점.

하지만 우투수만을 상대하는 플래툰으로만 기용되고 있는 점은 그가 이번 시즌 넘어야 할 산이다. 규정타석을 채웠을 경우 김현수의 MLB 전체 타율은 좌익수 8위, 출루율은 2위의 높은 성적이다. 반면에 좌투수 전담 플래툰인 놀란 레이폴드의 좌투수 상대 성적은 타율 .183

에 불과하지만 쇼월터 감독은 좌투수를 상대로 김현수를 거의 기용하지 않았다.

주루와 수비도 그가 극복해야 할 산이다. 테이블 세터로서 높은 출루율이지만 주루는 평균 이하였다. 수비도 외야가 좁고 펜스가 낮아 수비하기 비교적 수월한 캠프야드에서 좁은 수비 범위와 느린 송구속도로 수비능력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문제다.

[흐림] 추신수 (텍사스 레인저스), 이제는 뭔가 보여주어야 할 때

최상의 시나리오 - 부상 없이 풀타임 시즌. 2015년 시즌 9월급 활약을 보여준다.

코리안리거 만형 추신수는 주전경쟁에 대한 걱정은 적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아드리안 벨트레와 함께 연봉 2,000만불을 받는 선수지만 제대로 된 활약은 2014년 시즌 초반과 2015년 후반기 두 달밖에 없었다.

작년시즌 3번이나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성적도 부진했다. 지난 시즌 최종성적은 타율 .242, 출루율 .357, 43안타, 7홈런, 17타점에 그쳤다. 레인저스 구단은 작년 시즌 잦았던 부상과 올해 35세가 되는 추신수의 나이를 염려해 지명 타자와 우익수를 번갈아가며 뛰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신수는 2015년 시즌 9월에 이달의 선수상 (타율 .410, 출루율 .524)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무엇보다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흐림] 박병호 (미네소타 트윈스), 마음의 부담을 줄여야

최고의 시나리오 - 선구안과 타율을 개선한다, 장타율은 유지하고 무엇보다 평정심 회복.

힘은 이미 증명 되었다. KBO에서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한 박병호는 MLB에서도 팀 최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는 2년차 징크스와 함께 수비 불안과 플래툰 극복이 과제로 주어졌다

초로 30경기만에 9홈런을 쳤고, 특히 2호 홈런은 홈구장(타겟필드) 최장거리 홈런이었다. 그러나 타율 부진으로 7월에 마이너 강등 뒤 부상으로 마이너에서 시즌을 마쳤다.

박병호의 MLB로의 승격은 저조한 타율을 높이는 것이다. 박병호가 6월에 기록한 타율 (.191, 리그 최하위)과 같은 성적으로는 아무리 홈런이 많아도 MLB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다행히도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경쟁자가 될 케니스 바르가스와 트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조 마우어의 성적도 크게 뛰어나지 않아 박병호가 충분히 상대해 볼 만하다. 마켓이 작은 트윈스로서도 나름 거액을 투자한 선수인 만큼 박병호를 쉽게 내치기는 힘들다는 점도 위안이 된다. KBO에서도 중압감에 약한 모습이었지만, 중압감이 없다면 괴력을 보인 그였기에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의 싸움이 될 것이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펜웨이 파크 방문 일정 (가나다 순)〉

- 강정호 (피츠버그 파이리츠, NL 중부) : 4월 5일(홈 개막전), 6일
- 김현수 (볼티모어 오리올스, AL 동부) : 4월 11일~12일 / 5월 1일~4일 / 8월 25일~27일
- 박병호 (미네소타 트윈스, AL 중부) : 6월 27일~29일
- 오승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NL 중부) : 8월 15일~16일
- 추신수 (텍사스 레인저스, AL 서부) : 5월 23일~25일 텍사스 레인저스

itshunne@bostonkorea.com

살얼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항상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554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명물 덕보트 개선 요구 높아

작년 봄에 덕보트가 스쿠터 덮쳐 1명 사망 안전 수칙 강화 새 규제 법안 4월부터 시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덕보트는 땅과 물에서 동시에 이동 가능하고 특이한 모양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 끌며 오랫동안 보스톤의 명물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올해 수퍼볼 우승을 차지한 패트리 어츠의 축하 퍼레이드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보스톤의 주요 행사에는 어김 없이 등장하는 보스톤의 상징 같은 존재다.

덕보트는 보스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관광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덕보트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수칙 강화와 디자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덕보트의 운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에서는 2015년에 덕보트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의 대학생들이 죽었다. 이 사고 이후 시애틀에서는 덕보트의 운행 차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덕보트 운전자가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운전자가 덕보트 운전 중에 2번의

사고를 내 3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보스톤에서는 작년 봄에 28세 여성이 덕보트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때문에 덕보트와 관련한 규제 법률이 개정되었고, 안전 수칙이 강화된 새 법안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반 위머스는 "우리는 현재 덕보트의 디자인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위머스의 딸은 2016년 4월 30일에 스쿠터를 타던 중 덕보트가 덮쳐 사망했다.

덕보트는 원래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군이 상륙용으로 사용하던 수륙

양용 전차이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관광용으로 개조되어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내 대도시에서 130여 대가 운행 중이다.

덕보트의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덕보트의 외관 특성상 운전자가 보이지 못하는 사각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특히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차량의 전면부와 후방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안은 덕보트의 운전자 사각 지대에 카메라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외에 1명의 직원이 동승하여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광객들에게 주변 경관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작년 봄에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덕보트가 스쿠터를 덮쳐 성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피난처 시에 대한 뉴튼 시의회 표결이 진행되는 중에도 밖에서는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집회가 계속되었다

뉴튼 시의회 피난처 시 조례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수 주간의 집회와 회의 끝에 뉴튼 시의회가 "환영하는 도시(Welcoming City)"에 관한 조례를 표결 끝에 16 대 1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뉴튼 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뉴튼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선포한 것이다.

셰티 워렌 뉴튼 시장은 시의회 표결 결과를 환영하며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일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15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라

면 뉴튼에는 약 8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2%에 가까운 1만 9천여 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났다.

뉴튼 시의회 표결에 따라 뉴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항하여 주민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가 되었다. 피난처 도시는 일반적으로 지역 경찰이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단속에 개입하지 않는다.

뉴튼 시의회는 "피난처 도시"라는 표현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영하는 도시"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풍성, 보양, 특유의 향과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SeoulFoxBar.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전화: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의료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EA, MEKT, PET CT 포함)

- 1. 24시간 응급실 운영
- 2. 119 응급구급차 도착 시 응급 처치
- 3. 한국에서와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
- 4. 한국에서와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
- 5. 한국에서와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

성인	남성	여성
1. 1차진료: 5만 원	1. 1차진료: 5만 원	1. 1차진료: 5만 원
2. 2차진료: 10만 원	2. 2차진료: 10만 원	2. 2차진료: 10만 원
3. 3차진료: 15만 원	3. 3차진료: 15만 원	3. 3차진료: 15만 원
4. 4차진료: 20만 원	4. 4차진료: 20만 원	4. 4차진료: 20만 원
5. 5차진료: 25만 원	5. 5차진료: 25만 원	5. 5차진료: 25만 원
6. 6차진료: 30만 원	6. 6차진료: 30만 원	6. 6차진료: 30만 원
7. 7차진료: 35만 원	7. 7차진료: 35만 원	7. 7차진료: 35만 원
8. 8차진료: 40만 원	8. 8차진료: 40만 원	8. 8차진료: 40만 원
9. 9차진료: 45만 원	9. 9차진료: 45만 원	9. 9차진료: 45만 원
10. 10차진료: 50만 원	10. 10차진료: 50만 원	10. 10차진료: 50만 원

휴람 3주년 기념 특별 할인! 2월 24일까지

HURAM 해외여행의료보험 고객센터 82-70-4141-4040
 상담전화: 82-3469-6060 / ID: haramkorea
 haram@haram.kr / www.haramkorea.com

이민자 단속 확대 신규 가이드라인, 경범죄도 추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은 더 공격적으로 미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을 감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전면적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켈리가 서명한 두 메모에는 ▶수천명의 단속 요원들을 고용하고 ▶우선적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확대하며, ▶추방 심리를 신속화하고 ▶지역 경찰들이 이민자 단속을 돕도록 모집한다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켈리장관이 서명한 이 두 메모는 단속 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미국의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 메모들이 초안일 뿐이며 백악관 고문변호사들이 법적검토중에 있어서 일부는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계자는 이 과정이 아직 진행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켈리 장관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오바마 행정부가 범죄자와 테러연관자들의 집중적 추방에 집중했던 정책을 포함해 과거 어느 정권 하에서의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켈리장관은 “남부 북경쪽의 이민자들의 폭증은 연방 요원들 및 단속

재원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내의 중대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밝혔다. 켈리 장관은 2015년에서 2016년 미 남부 국경에서 월별 1만에서 1만 5천명의 불법 이민자 체포수 증가를 그 증거로 들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지금까지 미국내 2주 이하 체류 서류미비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절차 범위를 2년 이하 체류한 서류 미비자로 넓혔다.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멕시코 이민자들은 이민추방 심리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즉각적으로 추방하며 미국내 감금시설에서 머물지 않도록 해 공간과 비용이 들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이미 가이드 라인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해 75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노동허가권을 받

부한 “유년불법이민자유예조치(DACA)” 만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는 과거 즉각 철폐한다고 밝혀왔으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겠다며 지난주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메모에 따르면 1만 명의 이민단속국요원을 추가로 고용하며 국경 단속요원을 5천 명 추가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경찰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지역 경찰에 이민 단속관의 임무를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서명해 법제화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하에서 눈에 띄게 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거의 활용도가 약화 됐다. 현재는 16개주의 32개 타운 경찰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 군인출신인 그는 트럼프와 이민자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네디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 = 미 우체국(USPS)

케네디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우표가 20일 프레즈던트데이에 발행됐다.

미 우체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포에버” 스탬프를 20일 발매하여 JFK 도서관 및 박물관에 헌정했다.

이 포에버 우표는 1960년 테드 스피겔이 케네디 대통령의 시애틀 유세 당시 촬영한 모습을 담고 있다. 우표 전지에 들어가는 아트워크는 애론 쉬클러의 1970년 유화

로 케네디의 회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우정국에 따르면 이 그림은 백악관과 백악관 역사협회의 양해로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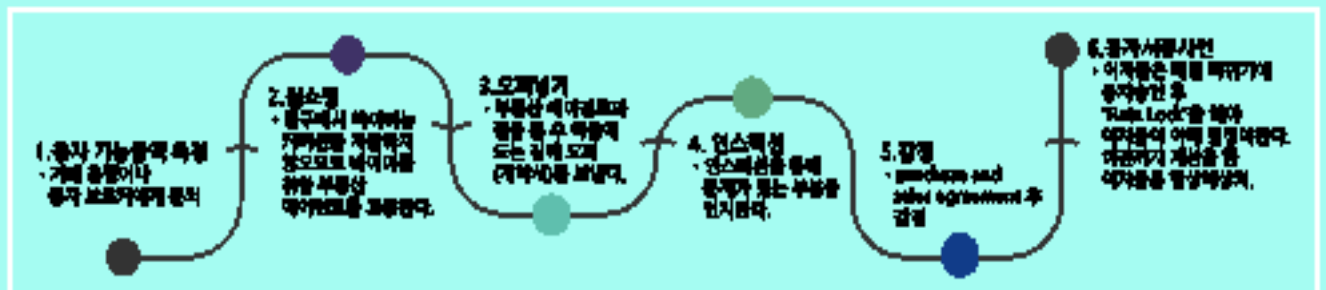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기념 우표는 21일부터 전국의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1917년 5월 29일에 태어났으며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1961년 당선됐다. 그는 취임 2년 만에 암살당했다.

hsb@hotmail.com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지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하신점 그리고 프로세싱 과정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생소한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를 몇 바이어가 알고있어야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어분들께서는 집 구매 전에 미리 자신의 크레딧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같은경우에는 크레딧이 간혹 쉬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i@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백악관 "새 反이민 행정명령 발표 연기, 내주 공개"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 백악관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다음 주로 연기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22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행정명령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이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지난 21일 폭스뉴스를 통해 기존

행정명령과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행정명령은 기존의 것과 대부분 비슷하다"며 "미미한 기술적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밀러 고문은 또 새로운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응답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행정명령엔 법적 공방 소지가 있는 기술적 문제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은 잘못되고 흠결이 있다. 행정명령은 분명 헌법에 합치되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yjyj@news1.kr

트럼프 지지율 38%, 국정운영 불만 55%

(서울=뉴스1) 김해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은 꾸준히 치솟고 있는 반면, 지지율은 또 다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된 퀴니피랙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8%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며 5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정운영 지지와 불만 사이 간극인 17%포인트(p)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최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실시된 지난 1월26일 조사 때보다 2%p 상승했다. 그러나 2주 전에 비해 4%p 하락했으며 특히 취임 5주차를 갖 넘긴 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낮다.

국정운영 반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취임 직후 44%를 기록한 미국인들의 반(反) 트럼프 정서는 지난 7일 51%로 훌쩍 오르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4%p 높아졌다.

응답자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하다(55%) ▲좋은 리더십 기술이 없다(55%) ▲일반적인 미국인들을 돌보지 않는다(53%) 등의 부정평가를 내렸다.

이 가운데 △신중하지 않다(63%)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60%) △국가를 통합하기 보다 분열시킨다(58%) 등 평가는 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다(64%) △총명하다(intelligent · 58%)는 긍정평가에서도 과반의 동의를 얻어냈다.

icef08@news1.kr

美켈리 국토안보 "불법이민자 추방, 10년래 가장 빨리 진행"

틸러슨·켈리 장관, 중남미 방문...이민 정책 논의 멕시코 "일방적 조치 받아들일 이유 없어"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22일 중남미 과테말라를 방문해 미국의 강력한 이민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켈리 안보장관은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을 일제히 추방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추방 작업은 지난 10년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추방 및 본국 송환 작업을 진행할 때 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리 장관과 회담을 진행한 프란시스코 리바스 과테말라 내무부 장관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중남미 지역의 마약 카르텔과 폭력배 문제는 양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단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리바스 장관은 또 북미 국가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와 이민 관련 컨퍼런스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멕시코나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를 방문한 켈리 장관은 이어 멕시코로 이동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합류한다. 틸러슨 장관은 페나 니에도 멕시코 대통령과 무

역 및 이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현재 멕시코에 도착한 상태다.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반에 장관들을 멕시코로 보냈다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간 의미 있는 관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반발이 거세 관련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비데가라이 멕시코 외교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켈리 장관의 방문에 앞서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비데가라이 장관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명확히 해두고 싶다.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은 다른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미국의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멕시코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21일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2건의 지침을 통해 국경 순찰관 및 출입국 관리관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10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외국인 이민자가 추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yjyj@news1.kr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2일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외의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j.usgtr@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선물상자 아이디어
 다양한 주제의 선물상자, 정통 선물상자, 소품 주제의 선물상자, 나만의 선물상자, 기념하고 추억하게

1. 선물상자 기획
 2. 선물상자 제작
 3. 선물상자 배송

문의 617.248.3131 Happydol@igmail.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1920년대식 구조적 이슈 재부상, 대폭락 대비하라"

"현재 랠리는 데드캣 바운스...펀더멘털과 불일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지난 1929년 미국에서 주식시장의 붕괴를 일으켰던 구조적 이슈들이 재부상되고 있다고 폴 갬블 MBMG그룹 투자 고문이 지적했다.

갬블은 22일 CNBC방송에서 "진짜 구조적 이슈들이 많다"며 "1920년대 스타일의 구조적 이슈들이 재부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기반 MBMG그룹의 갬블은 현실과 시장의 가격책정 사이 불일치에 대해 일평생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가 영향을 끼

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 대상을 6개월 혹은 1년 전에 맞춰 놓고 단기적 관점에서 백미러를 보는 위험에 빠졌다고 갬블은 경고했다.

갬블은 주식이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매우 부정적"이라며 현재 주가가 "통제력을 상실한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 일시적 반등)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드캣은 재앙적"이라며 "기저의 펀더멘털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9.2% 뛰었다. 법인세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영향이다. 하지만 갬블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시장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가격을 매기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현실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 많은 역풍이 보인다"고 말했다. 갬블은 "시장이 써 버린 수 많은 백지수표는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장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rimi99@news1.kr



뉴욕증권거래소(NYSE)

오바마 비난하더니...트럼프, 한달간 라운드 '차례'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 달 동안 6차례, 총 25시간을 골프를 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2일 트럼프의 취임 한 달 동안의 업무 시간을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쏟은 비판을 잇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골프광이라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지난 2014년엔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골프를 치는 데 하루를 보낸다.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골프를 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취임 첫 한 달 동안 6번이나 골프를 쳤다. 그중 5번은 18홀을 모두 돌았다.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업무상 골프 라운드를 한 것도 포함됐지만 이를 빼고는 개인적인 라운드다. 지난 주말엔 아들 내내 남자골프 세계 랭킹 3위인 로리 매길로이와 골프를 치는 데 시간을 쏟았다.

한 달 동안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 D.C.의 백악관과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세 차례 오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행을 갈 때마다 "대통령의 휴가에 납세자들의 세금 수백만 달러가 쓰이고 있다. 믿을 수 없다"

고 비난했던 그였다. 마라라고 방문엔 100만달러(약 114억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의 업무에선 트위터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한 달 동안 총 128건의 트윗을 날렸다. 트위터를 작성하는 데 쓴 시간은 총 13시간. 그가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는 데 할애한 시간(6시간)의 두 배가 넘는다.

또 전체적으로 업무 시간보다 비업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182시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39시간 등 총 221시간을 일했다고 보도했다. 골프를 치고 트위터를 날리는 시간을 제외한 비업무 시간은 총 399시간이었다.

업무 시간 가운데 기자회견에 쓴 시간은 4시간, 행정명령 등 각종 문서에 서명한 시간은 6시간, 외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회담을 한 건 21시간, 다양한 그룹과 소통을 가진 건 14시간 등으로 파악됐다.

yjyj@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방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방돌 공장 전경



You work hard for your money.

We can help you keep more of it.

With every new **FREE** checking account you'll receive big conveniences and big savings including:

- Mobile Banking with Check Deposit
- Access to Allpoint® ATMs
- Online Banking and Bill Pay
- Instant issue ATM/VISA® check card
- e-Statements
- Your choice of a **FREE** Gift

Please come by today to open your Simply Free Checking account with Gina and meet Tatiana to see how we can serve you.



181 Brighton Avenue, Allston
 800.657.3272 ebsb.com

Minimum deposit of \$20 is required at account opening. Customer purchases checks. We reserve the right to substitute a gift of similar value, while supplies last. Please note in the event the value of the free gift exceeds \$50, the bank is required to report the gift value on form 1099-BIT or 1099-MISC. The recipient is responsible for all applicable taxes. We'll pay you up to \$15 for your unused credit and check card from another financial institution. Offer may change at the discretion of the bank at any time.

Member FDIC Member NCUA

이재용 잡고 우병우 농친 특검, 남은 닷새 마무리는?

우병우 · 이재용 보강수사 집중
수사기간 연장 · 차대통령 대면조사 난망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70일간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로 앞두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보내고,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의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시간 및 절차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사실상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은 남은 닷새 뿐인 셈이다.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수사개시 이후 60일 넘는 시간 동안 특검은 총 1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수사에는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였지만,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맥을 못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가까스로 구속시킨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한마리 토끼를 잡은 대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등 나머지 핵심 의혹은 줄줄이 농친 채 수사를 마무리할 판이어서 지금까지 펼쳐놓은 수사

매듭짓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실패...보강수사 집중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의혹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의 경우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수사기간 내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영장에 적시했던 피의사실과 관련한 보강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혐의만으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확신했던 특검이지만, 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을 특검과 달리 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던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 압 의혹 등 검찰이나 법무부에 맞닿은 수사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간부족뿐 아니라 내부 이견 등 다른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면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

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靑 압수수색은 무산...차대통령 대면조사도 난항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혀 왔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차례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것을 빌미로 무산된 이후 계속해서 물밑 조율만 오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더불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면조사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박 대통령을 상대로 단 한번의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55)으로부터 관련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만큼 조만간 김 원장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 아내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에 수천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기소 · 재판 넘긴 13명 공소유지 대비 만전

특검은 이미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와 이 부회장 기소 준비에도 착수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씨 일가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최씨와 안전 수석 등 국정농단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기존 기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나 병합절차를 거치는 등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장총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의 신병처리도 같은 시점에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은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화려하게 꾸리고 나서 특검 역시 이에 맞춰 공소유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전관(前官)'인 김기수 변호사(77)를 포함해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

(68·47), 법원장 출신 김경중 변호사(63·97),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80·고시 10회) 등 총 11명(판사 4명·검사 4명 포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때문에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2일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인원을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특검법) 개정안에 일부 규정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잘 반영돼 법이 개정된다면 특검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인원 등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3346@news1.kr



여야, 법사위서 '박영수 특검' 연장 놓고 '팽팽한' 공방

與 "檢서 충분히 수사가능"
野 "檢, 법무부 압수수색 하나"

(서울=뉴스1) 서승희 기자 =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검찰에서 이관받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특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부각시키며 연장론을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인력은 검찰과 견주가 많기 때문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이관받

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검 연장을 않고 검찰에서 수사하는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기간 연장 승인권자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오자, 수석전문위원을 상대로 개정안이 '박영수 특검'에도 적용되는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상설특검에 국한한 것으로, 박영수 특검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상설 특검법이든 개별 특검법이든 특검 기

간 연장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 이같은 사례는 간사간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입법부 대표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본질적 행정권한을 준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질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검 연장이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서 압박 수단으로 법안이 제출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던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조영천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일반 검찰로 돌아가서 수사한다고 할 때 법무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일반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느냐"며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권한대행은 특별수사본부 설치 여부에 대해 "(특검)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

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본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에 대한 정책을 넘어서서 정보 공유 등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song65@news1.kr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24 - MAR. 2,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MUFFIN CUP DUKBOKI

Take your favorite rice cakes in a cheesy cute cup!
Can't decide between pizza and dukbokki? Try this recipe.
피자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을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H마트표 초간단 피자 컵떡볶이를 소개합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 lb.

Ginger 생강 **\$1.29** lb.

Kabocha 단호박 **\$0.88** lb.

Gobo 우엉 **\$1.99** lb.

Ya Pear 야배 **\$1.29**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1.29** lb.

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하와이 **\$1.99** lb.

Dragon Fruit 드래곤 플러트 **\$3.99** lb.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3cm/pkg **\$7.99**

SOONYEWON Tofu 수녀원 콩두부 Soft/Firm/Silken/14 - 16oz **\$0.99**

FRIDAY/SAT/SUN ONLY 24/25/26 ONLY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닭사슴 **\$1.99** lb.

Thinly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삼겹살 **\$8.99** lb.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2mm **\$9.99** lb.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 lb.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1.59** lb.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HARU HARU Medium Grain Brown Rice 하루하루 현미밥 15 lb. **\$9.99**

KADOMA Pure Sesame Oil 가도마 참기름 500ml **\$14.99**

HOSAKU Sanuk Style Udon 호사쿠 사누케 우동 8.8oz. x 5cm. pkg **\$2.99**

동서맥심 커피믹스 **\$9.99**

DONGSUNG Macin Coffee Mix 동강맥심 골드 믹스 100g/20pkgs **\$9.99**

HMART NOW HAS AN APP & REFRESHED WEBSITE!

THE HMART APP IS NOW LIVE. DOWNLOAD IT AND VISIT OUR REFRESHED WEBSITE FOR ALL HMART SALES, PROMOTIONS, AND EVENTS.

H마트의 각종 세일 이벤트와 할인 쿠폰들을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H마트 모바일 앱과 더욱더 보기 편리한 웹사이트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30-40's **\$5.99** lb.

Cooked Baby White Clam 백합조개 1 lb/pkg **\$2.99**

Masago 마사고 1.1 lbs/pkg **\$9.99**

TONGTONGBAY Swai Fillet 통통배 스와이 필렛 Family Pack/2 lbs. pkg **\$5.99**

Salted Yellow Croaker 자반 참조개 **\$5.99** lb.

Jeju Olive Flounder 제주산 활명어 **\$14.99** lb.

FRIDAY/SAT/SUN ONLY 24/25/26 ONLY

Kyong G Rice 경계미 43 lb. **\$25.99**

MINGHYUP Asian Apricot Tea 농협 하늬가래 청매실 700ml **\$21.99**

HAOREUM Citron Tea w. Honey 해오름 유자차 2.7 lb. **\$4.99**

GOMPYO Wheat Flour 공표 밀가루 5.5 lb. **\$3.99**

AKIMOTO Hondashi Bonito Soup 아키토노도 혼다시 **\$9.99** 1.22 lb.

농협 부대찌개용 **\$5.99** 4-8oz x 4oz/pkg

NONGSUNG Budaes Jjigae Noodle Soup 4-8oz x 4oz/pkg **\$2.99** 2 lbs.

HAOREUM Canned Baked Mackerel Pike 해오름 참치 통조림 14.1oz. **2\$3 \$4.99**

MINGHYUP Dried Seaweed 농협 장보고 완도 돌미역 1.25oz. **\$4.99**

BONNE MAMAN Fruit Preserves 분마만 과일잼 **\$2.99** 4oz Jar (1.1oz)

CROWN Banana Choco Sundae Ice Cream 크라운 바나나 초코맛 아이스크림 **\$2.99** 10.01oz

BLUDDO Pocky 블루도 포키 **\$2.99** 4.5oz/3.5oz/pkg

Rabbit Slippers 토끼 슬리퍼 **\$2.99** 1-pk

Slippers 슬리퍼 **\$3.99** 1-pk

KITCHEN ART Living Modern Stainless Steel Pot Cookware 기전아트 리빙모던 양수냄비 **\$21.99** 24oz/1.75lb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는 판매하는 동안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H마트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판매하는 동안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H마트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박, 탄핵심판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되나...파면vs기각

27일 오후 2시 열려...양측 최종의견 피력
박대통령 나올 경우 최후진술 뒤 재판부 · 국회측 신문

(서울=뉴스1) 구교은, 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이 모두 끝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은 23일 채택된 증거자료와 최순실씨 등 증인 25명(안중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2번)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16회 변론 전 박 대통령에게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는 최종변론 전날인 26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양측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였던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탄핵심판의 의의를 밝히며 최종진술이 시작됐다. 이어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돌아가며 탄핵심판의 범위와 소추절차의 적법성, 탄핵사유의 중대성에 대해 진술했다.

진술시간으로 30분이 주어졌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은 2시간 동안 변론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 측은 고(故) 유현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등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이번 사건에선 '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현재에 파면

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변호인' 역할인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국정농단사태는 고영태 등 관련자의 음모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사건은 노 대통령 사건보다 탄핵사유가 많고 복잡한 만큼 변론시간이 더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전날 열린 16회 변론에서 재판부에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변론절차는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피청구인석에서 대리인단과 나란히 앉아 최종 변론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박 대통령은 준비한 최후의견을 재판부 앞에서 밝힌다.

박 대통령의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으로부터 탄핵사유 5가지 유형에 관한 신문을 받게 된다. 대통령은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답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1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1시간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도 탄핵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나오는 만큼 파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재판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선고날짜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 추후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현재는 4월30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5월11일 선고날짜를 공지하고 5월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최종변론 후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3월1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kukoo@news1.kr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 황당변론에 헌법학자들 "할말 잃어"

"김평우 말 참고 들어준 재판관 인내심에 경의를"
권성동 "반박 자체가 현재 격을 떨어뜨려...안 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황당 변론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열린 15회 변론기일에서 변론기회를 주지 않는 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모욕적 언사를 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인사다.

이날 열린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장으로부터 변론 기회를 얻은 김 변호사는 홀로 두 시간 가까운 변론을 했다. 문제는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물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이어진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대다수 헌법학자는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접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취재를 위해 연락을 취한 헌법학자 다수는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에 대해 헌법적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논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 역시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많고 사실과 달라 반박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 자체의 문제점 △국회 소추절차의 문제점 △재판부의 공정성 비판 등이다.

하지만 헌법학자 다수는 김 변호사의 변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가 국회의 졸속 탄핵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문제라며, 미국이 탄핵제도를 만든 국가라며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탄핵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이 안된다"고 일축하며 "우리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이 미국보다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오히려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 가운데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강화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에게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의결 요건

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서 '원래 탄핵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탄핵제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는 일방적인 자기주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의 탄핵 기원이 미국이라는 주장은 아예 사실과도 다르다.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또 미국의 탄핵 제도야말로 세계 각국의 탄핵 제도 가운데에서도 예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얘기다.

장영수 교수는 "영국이 탄핵제도의 시조"라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의회에서 소추를 하고 현재에서 결정을 하는 독일 제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탄핵제도야말로 예외적인 것으로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 '의회형 탄핵'은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오남용의 여지가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건건이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 교수는 "(김 변호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소추사유별로 건건이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했어야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나, 우리의 경우에 탄핵소추의결은 여러 소추사유가 기재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회 예산안이나 기타 의결안도 통으로 전체가 의결되는 것이지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부처별 개별 예산안을 건건이 의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라며 "이는 김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 부분 탄핵소추의결의 적법성은 법무부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접한 한 헌법학자는 "김평우 변호사의 말을 참고 들어준 재판관들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탄핵소추 사유 부인 등 본안 판단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재판관들에 대한 훈계 등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회 소추의결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 "대답해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변론을 경청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채택과 관련해 새로 만들어진 기준을 맹비난하며 "판사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등의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결국 이정미 재판장이 김 변호사의 지난친 언행을 제지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황당한 변론을 이어갔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김 변호사의 변론 태도가 헌법기관인 현재의 권위와 심판정의 존엄과 엄정함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jurist@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ysun@bostonpremierrealty.com</p>	<p>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shinbok@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ri@bostonpremierrealty.com</p>
--	---	--	--

NEW LISTINGS LISTINGS

<p>Residential</p> <p>Single Family</p> <p>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8 Bed 4.5 Bath SOLD</p>	<p>Residential</p> <p>Condo</p> <p>17 Berkeley Ave, Boston MA 2 Units. Boston Center City, 2022 sq ft Renovated Condo, 2nd Floor 2 Bed, Hard W- Floors, Kitchen, Laundry Room Asking \$891,000, \$999,000</p>	<p>Commercial</p> <p>삼흥 & 스파</p> <p>Roslindale 위치, 1,200 sqft, Rent \$2,500 Asking \$4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Physical 양재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450,000</p>	<p>LISTIN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Price \$999,000 NEWBY 개, 주방 시설 \$1,000,000 SOLD 2. Full Price \$750,000 Southside 2nd Unit Asking \$65,000 3. Full Price \$695,000 5050 4th St. Asking \$65,000 4. Full Price \$695,000 Southside-2nd Unit 개, 주방 시설 Asking \$65,000 5. \$250,000 Asking \$1,000 6. \$100,000 Asking \$25,000 - \$45,000 7. \$100,000 721 Harvard St, 2nd Fl, Southside \$1,500 SOLD 8. \$100,000 20 1/2th St, Southside \$1,500 9. \$100,000 20 1/2th St, 1st Fl, Southside SOLD 10. \$100,000 20-25 1/2th St, Southside SOLD 11. \$100,000 Asking \$1,500 12. \$100,000 1st Unit, 1st Fl, Southside SOLD 13. \$100,000 47 Harvard Ave Unit 3-4 Cambridge SOLD 14. \$100,000 47 Garden St Unit 101 Asking SOLD 15. \$100,000 50-19 Essex St, Unit 101 Cambridge SOLD 16. \$100,000 31 Harvard St, Cambridge SOLD 17. \$100,000 100 Parker St, Unit 201 South Boston SOLD 18. \$100,000 1st Unit, 1st Fl, Southside SOLD <p>NEW Full Price \$999,000 \$1,000,000 North Shore, 2nd Unit \$100,000 Asking \$100,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p>	<p>Commercial</p> <p>일식당</p> <p>Beer and wine 포함 License도 지역 좋은 위치 Nice location Asking \$190,000</p>	<p>Commercial</p> <p>컨비니언스 스토어</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비즈니스 센터</p> <p>Brookline 현재 세무소겸합판, 좋은 임대수입 Nice location Asking \$509,000</p>	<p>Commercial</p> <p>한국식당</p> <p>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면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세탁소</p> <p>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대선주자 6인 "전경련 해체" 한목소리...기본소득 '이견'

차정부 담뱃세 인상도 일제 비판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주요 여야 대선주자들은 22일 한목소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판을 한 몸에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담뱃세 인상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선 주자마다 다양한 입장을 드러냈다.

(뉴스1)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야 대선주자 6명을 상대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들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미 LG, 삼성,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이 탈퇴를 해서 존재감이 없어진데다 그간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가 돼 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재명 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의 후손과 집사들이 대기업에 기생해 기업 이미지만 실추한다"며 '재벌 가문 해체'까지 주장했다. 다른 주자들은 자신 해산 또는 해체 후 다른 성격의 조직으로 역할변경 등을 제안했다.

대선주자들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하

게 결과적으로 증세의 효과만 거뒀다며 '증세없는 복지'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의 실패작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다만 현재 담배가격 유지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 안희정 지사 등은 우선 인상된 담배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이 새로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 시장은 실패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국민 공론을 다시 수렴하자고 제안했으며 안철수 전 대표는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았으므로 마련된 재원을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선 입장들이 엇갈렸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제도 보완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존 사회복지체계를 보강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새로운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 국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만 연간 180조원이 투입된다"며 "증세부담, 근로의욕 감소 등을 유발하는 등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 연금 등 복지 관련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영향력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일종인 기

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실업급여 제도 강화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보장제' 우선 실현을 주장했다. 일종의 과도적 시스템인 국민기본보장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한 후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유일하게 기본소득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정화 △지역상품권

통한 내수 ·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사회 · 경제 · 미래의 3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에 따른 생애주기별로 100만원, 장애인 · 농수산업자 등 특수 배당 100만원, 전국민 토지배당 30만원 등이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필요 재원은 43조원이지만 예산절감 ·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15조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findlove@news1.kr

대선주자 경제정책 6인6색 : 기본 소득



문재인 안희정 유승민
"빈부 격차 해소 위해선 기존 복지제도 보완이 더 중요"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남경필
"월 30만원만 제공해도 연간 180조 투입"
"다만 복지 패러다임 변하고 있어 당선되면 '기본소득연구위원회' 설치할 것"



안철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실업급여 강화한 '국민기본보장제' 우선 실현해야"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으로의 전환 검토"



이재명
"기본소득제는 사회 · 경제 · 미래의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생애주기별,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으로 충분안 효과 기대"

대선주자 경제정책 6인6색 : 전경련 해체



문재인 전대민주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국민의당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재벌 이익만 대변한 정경유착의 창구는 해체해야"



"기업 이미지 실추하는 재벌가문도 같이 해체해야"

안희정 '선의 발언'에 상승세 '주춤'...文 32.4%, 安 19.2%

리얼미터...이어 황교안 11.6%, 안철수 10.5%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4주 동안 대권 가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 발언 여파로 소폭 하락하며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MBN·매일경제 의뢰 2월 4주차 주중집계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지난 주에 비해 1.2%p 내린 19.2%를 기록했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는 13.2%p로 지난 주에 비해 소폭 더 벌어졌다. 문 전 대표는 32.4%를 기록, 지난 주 32.5%에 비해 0.1%p

줄었다. 특검 수사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2%p 내린 11.6%로 2주째 하락, 1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떨어지며 2위 안 지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1.7%p 오른 10.5%로 3주만에 다시 10%대로 상승, 황 권한대행과의 격차를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최근 복지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주 대비 2.0%p 오른 10.1%로 1월 3주차(10.1%) 이

후 5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 안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유지했다.

바른정당 경선규칙을 둘러싸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0.6%p 내린 3.3%, 최근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대선출마를 시사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1.5%p 상승한 3.3%를 기록해 유 의원과 홍 지사가 공동 6위를 기록했다.

남 지사는 지난 주 주중집계 대비 0.4%p 오른 1.8%, 국민의당의 손학규 전 대표가 0.9%p 내린 1.7%,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0%p 하락한 1.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4%(이하 지난 주 대비 2.3%p 하락), 자유한국당 13.4%(1.7%p 하락), 국민의당 12.2%(0.7%p 상승), 바른정당

6.3%(0.7%p 상승), 정의당 4.7%(0.7%p 하락) 등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일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8%), 무선(72%)·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

위생성·자체구축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ej86@news1.kr



불판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불금 데이'로 소비 살린다...월1회 금요일 4시 퇴근

주중 연장근무...참여기업 인센티브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로 상향...청탁금지법 피해업종 대출지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죽어 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매달 한 차례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기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을 늘려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소비시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민생 진작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뜬 이같은 '불금데이'는 매월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해 퇴근시

간을 앞당김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직장인 가구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해 소비심리를 회복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금요일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대신 월~목요일 30분씩 더 근무해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유연근무 방식을 예로 들었다. 정부·민간 등 구체적인 부문별 추진방안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은 3월에 내놓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함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자금 800억원을 별도로 조성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내에서 2.39%의 금리로 대

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1년 한 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에도 메르스로 인한 소비 부진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되 2017년 전체 사용분에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boazhoon@news1.kr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화훼공판장을 방문, 화훼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2만쌍 사라져...결혼 7% 줄어

2016년 12월 인구동향...통계작성 후 역대 최저
20대 후반·30대 초반 이어 30대 후반도 기피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전보다 2만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30만2828건) 대비 2만1028건(6.9%) 줄어든 28만1800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혼인 건수가 30만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월간 통계작성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혼인율은 내내 좋지 않았다. 1월 시작부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결혼시즌이라는 5월에도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또 줄곧 3만~4만건을 기록했던 12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2만8400건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연간 혼인 건수 30만건 붕괴로 이어졌다. 한달 기준 2만5000건 이상의 결혼이 성사된 달은 3월, 5월, 11월 등 단 3달에

불과했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결혼적령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남녀 모두 20대 젊은층의 혼인 감소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4분기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25~29세 남녀 각각 인구 1000명당 1.1건, 1.7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30~34세 남녀의 경우 각각 1건, 0.7건 혼인이 감소했다. 30대 후반의 혼인 건수 감소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4분기 35~39세 남녀 혼인 건수는 각각 0.4건, 0.2건 줄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 그동안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30대 후반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혼인 감소가 전연령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나홀로족 절반이 40대 이하...예·적금 등에 77% 투자

10명 중 7명 "혼자 사는 삶 만족"
2035년 1인 가구 760만 전망...전체의 34%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40대 이하다. 대부분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관리를 하면서 노후를 대비했다.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앞으로는 혼자 살 생각이 많았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23일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서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40대 이하가 전체의 52.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증가했다. 4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세종(68.3%), 서울(63.8%) 순으로 높았다. 소득별로는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다. 거주 주택은 5~10평 원룸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82.8%) 반전세를 포함한 전·월세였다. 경제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노후자금에 관심이 높았다. 은퇴와 노후를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무려 80%에 달했다. 자산관리는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76.7%로 높았다. 입출식계좌가 17.5%, 예·적금이 5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은 9.6%, 주식·선물·옵션은 8.6%에 그쳤다. 대출 보유율은 42.5%로 높았다. 대출금 중 절반은 주거비로 쓰


고 있었다. 금융상품 중에는 거주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관심이 높았다. 질병 관련 보험도 주요 관심사다. 보험 보유율은 81.5%인데, 실손보험 가입률이 66.3%로 집계됐다. 카드 혜택도 유용하게 쓰는 편이다. 10명 중 4명이 외식이나 쇼핑, 편의점 할인 혜택에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향후 모바일 뱅킹이나 앱을 자주 쓰겠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생활의 만족도는 높았다.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84.4%)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10명 중 7명은 향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생각이 있었다. 남녀 간 온도차는 컸다. 여성(63.1%)이 남성(39.3%)보다 혼자 살 생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KB는 2035년 국내 1인 가구가 7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의 34.3%에 달하는 규모다. 김예규 연구위원은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새로운 소비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객군 분류와 니즈에 맞는 영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확실히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과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온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마이클 리 모기지

Norcom Mortgage
Mortgage Commercial Corp. Inc. 1996.2.27 (F1912)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ls.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첨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 #148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휴일 특집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일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1 휴일 안 종합검진 (해머리: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라섹: 1시간 30분)
*해머리: 1시간 30분, 프리라섹: 1시간 30분
- 2 노안 수술은 노안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해머리: 1시간 30분, 프리라섹: 1시간 30분
-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18만
*해머리: 1시간 30분, 프리라섹: 1시간 30분
- 4 2030 라식/라섹
*해머리: 1시간 30분, 프리라섹: 1시간 30분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이제 나의 노안
문제를
해결하세요.

준비를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올해의 임의로
라식/라섹을
받으셨다면...**

20~30대 초반/중반에
4000원 이하의 비용에
당연히 수술
비용이 20% 이상 증가



**안경과 렌즈가
사용이
불편한 경우**

렌즈 사용, 안경 착용
안경 사용 시
안경 사용 시



**안구 건조
노안이 빨리
올 경우**

1년 1000원 이상
노안 수술
비용이 20% 이상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술
필요할 경우**

노안 수술과 함께 노안
수술 시 10000원 이상
비용이 2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수남 1-844-DO HUPAM (1-844-364-5726)
주소: 01834 65 4040 / Boston, MA
bostonhupam.com / www.hupam.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패트리어츠 자유계약 선수 우선 순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는 기적 같은 수퍼볼 우승까지 일궈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리고 수퍼볼 우승을 가능하게 했던 선수 중 무려 20명의 선수가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 신분이 된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20명의 선수 중 상당수가 패트리어츠 전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샐러리캡이 존재하는 NFL에서 모든 선수들과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패트리어츠가 오프시즌 동안 최우선 순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요 자유계약 선수들을 살펴보자.

1. 단테 하이타워 - 라인배커

단테 하이타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 패트리어츠에서 자유계약 신분이 될 선수 중 잡아야 할 선수 1순위다. 하이타워는 패트리어츠 수비에서 핵심적인 선수다. 하이타워를 놓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2. 말콤 버틀러 - 코너백

말콤 버틀러는 하이타워 만큼이나 중요한 선수지만,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다. 버틀러는 계약이 있는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버틀러와 새로 계약을 맺는 팀은 패트리어츠에 1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을 넘겨줘야 한다. 이 때

문에 버틀러는 우선 순위에서 하이타워에 이어 2번째로 중요하다. 상대팀의 리시버를 1대1 상황에서 완전히 마크할 수 있는 이른바 섯다운 코너백으로서 버틀러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3. 앨런 브랜치 - 디펜시브태클

브랜치는 디펜시브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32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다. 하이타워와 버틀러가 내년 시즌에 27세가 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동시에 나이 때문에 브랜치의 시장 가격은 실력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 지난 시즌 브랜치는 275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브랜치의 실력과 팀 공헌도는 1,000만 달러 이상이었다.

4. 마텔러스 베넷 - 타이트엔드

패트리어츠 내에서 베넷의 가치는 랍 그롱코스키의 재활 여부에 달려 있다. 등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그롱코스키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베넷은 스타팅 타이트엔드가 아닌 백업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베넷은 이미 자유계약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 받고 싶다고 공언했다.

5. 로건 라이언 - 코너백

로건 라이언과 견줄만한 선수로 자노리스 젠킨스가 있는데, 지난 오프시즌에 젠킨스는 자이언츠와 5년-6,250



무명의 연습생에서 수퍼볼 영웅으로, 그리고 패트리어츠 최고 코너백으로 성장한 말콤 버틀러는 패트리어츠가 잡아야 하는 선수다

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라이언은 분명 재능이 있고 뛰어난 선수지만, 패트리어츠가 이만한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다. 라이언이 떠날 경우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서 동시에 활약할 수 있는 코너백을 찾기가 쉽지 않다.

6. 듀론 하먼 - 프리세이프티

듀론 하먼은 스타팅 세이프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도 낮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수비의 반경과 의존도 면에서 하먼과 같은 선수를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하먼은

빌 벨리치 감독이 선호하는 타입의 선수다.

7. 르개렛 블런트 - 러닝백

내년 시즌에 31세가 되는 르개렛 블런트는 패트리어츠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확실하게 표시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가 저렴한 가격에 블런트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가 않다. 지난 시즌 프로 경력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블런트의 성적표는 적어도 수치 상으로 최고의 시즌이었기 때문이다.

8. 크리스 롱 - 디펜시브엔드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크리스 롱은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치는 해냈다. 그리고 올해 롱은 32세가 된다. 썬다운 상황에서 롱은 확실하게 상대팀 쿼터백을 압박해 주었지만 실제로 쿼터백 싸움을 성공시킨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단기 계약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가격이 롱의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美매체 "피츠버그, 강정호 잃을 여유 없다"

(서울=뉴스1) 맹성호 기자 =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음주운전 과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전했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22일 강정호의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의 타자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재판으로 이어졌고 강정호는 결국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큰 잘못을 한 걸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매체는 "강정호가 2009년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을 한 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구'만 봤을 때 달랐다. 매체는 "피츠버그는 지금 강정호를 잃을 여유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정호의 대체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매체는 '데이빗 프리스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필 고슬린은 유틸리티 자원이지 주전은 아니다"며 강정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프리스는 지난해 141경기를 소화했지만 타율 0.270에 13홈런 55타점을 기록했다. 고슬린은 지난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뛰며 122경기에서 타율 0.277, 2홈런 13타점에 그쳤다. 103경기에 출장해 21홈런 62타점을 기록한 강정호에 비해 파위가 약하다.

이에 매체는 "강정호가 시즌을 늦게 시작할 순 있다. 하지만 다른 선수가 그의 파위를 대체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호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능력만큼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강정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3일 열린다. maeng@news1.kr



음주행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세인트루이스 감독 "오승환, 26일 시범경기 등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메이저리그 2년 차를 맞는 '끝판대장'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구체적인 첫 실전 등판 계획이 나왔다. 마이크 매서니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오승환을 첫 시범경기에 출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지역매체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22일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진행 중인 세인트루이스의 스프링캠프 소식을 전했다.

매서니 감독은 이날 아침 오는 26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범경기에 나설 선수들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WBC 대표팀에 차출되는 오승환의 이름도 포함됐다.

매서니 감독에 따르면 마이애미전에 우완 루크 워버가 선발로 나온 뒤 존 갠트, 오스틴 곰버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르고, 오승환도 등판해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다.

매체는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오승환도 마이애미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그는 경기 후 한국 야구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환은 2016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었고, 지난해 79%이닝에 나와 6승3패 14홀드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의 성적을 냈다. 매서니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오승환을 마무리로 점찍고, 신뢰를 보내고 있다.

팀 스프링캠프에서 땀 흘리고 있는 오승환은 매서니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위를 점검받은 뒤 귀국길에 오른다. 앞서 한국 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오승환이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고, 28일부터 대표팀에 합류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김인식 한국야구대표팀 감독도 "오승환이 미국 현지에서 한 차례 실전 등판을 한 뒤 대표팀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우완 오승환(35)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력을 더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제귀 케이크
- 국내산 용가림시와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에이어에 있는 청계식품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T. 978-772-5213

렉싱턴에 있는 식당. 웨이터 또는 웨이 트레스 및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781-860-0171 (Kay)

생선가게(매타팬)에서 생선 판매 및 케시어 하실 분(풀타임) 구합니다.
T. 603-401-4986

MA 운전면허증

- 신규 및 갱신 (Renewal)
- 타주면허증 당일 재발급
- 한국면허증 소유자 무시험 교환
- 소셜번호 없는 분도 환영
- * 운전면허 어려움 있는 분 상담

T: 857.615.1416, 917.340.0595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tick 지역 세탁소. 매상 \$600K, 매매가 \$600K, Owner Financing 가능
T. 617-943-350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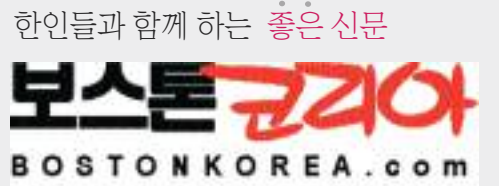
www.masta.us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남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4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수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인간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글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위삼프러디어 교회	918-876-2815
임피어뉴얼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크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크스키텀클럽	617-331-1011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위삼프러디어 교회	918-876-2815
임피어뉴얼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방수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테드카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신영목 치과	978-655-1583
안 치과	781-647-8000
엘렉스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스	617-871-1482
켄지스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쥬치	978-263-4592

"탈장으로 인한 불편함... 간단한 복강경수술로 해결하세요"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녹색병원'... "복강경수술,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탈장을 복원할 수 있는 수술"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복벽이 약해져 튀어나온 장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탈장에 대해 휴람 네트워크 종합병원 녹색병원의 김봉구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Q. 탈장이란?

탈장은 복강(Abdominal Cavity, 腹腔) 즉, 배 안에 존재하는 장이 약해진 복벽이나 틈을 통해 튀어나오는 것을 말한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고 고령화 추세로 인해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 병원 조사 결과를 보면, 탈장 수술 환자의 70% 정도가 50대 이상 고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가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탈장의 증상과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한다.

탈장은 생긴 위치에 따라 제대탈장(배꼽부위)·서혜부탈장(사타구니부

위)·대퇴탈장(대퇴부위)이 있고, 수술부위에 생기는 반흔탈장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소아탈장과 성인탈장으로 나뉜다.

우리 장기는 복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복벽은 크게 복막과 근육층 2~3겹, 피하지방, 피부로 구성되는데, 탈장은 주로 근육층이 벌어지면서 생긴다. 복벽이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다. 복압을 높이는 운동도 탈장을 부추긴다.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 약해진 근육층이 더 쉽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다가 탈장되는 사람이 많다. 윗몸일으키기는 탈장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그 외에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변비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다가 탈장이 생기기도 한다.

Q. 증상과 치료는?

소아탈장은 선천적인 것이고, 성인탈장은 복벽의 일부가 약해져 발생하며 탈장된 부위가 돌출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배꼽 부위에 나타나는 제대탈장은 유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만

2세까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탈장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혜부탈장은 주로 성인 남성에게 나타난다. 탈장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다양한데 대부분 사위하면서 사타구니 위쪽인 서혜부나 복벽이 부풀어오르는 증상을 발견해 병원을 찾는다. 부풀어오르는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보통 피부 안쪽으로 달걀 크기 정도가 볼록하게 솟아오른다. 이 달걀 모양은 누워 있으면 없어지므로 서 있을 때 관찰해야 한다. 서혜부탈장이 생기면 처음에 사타구니 부근에 빠근한 느낌이 든다. 걷거나 복압이 높아질 때 사타구니 주변이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눕거나 복압이 떨어지면 원상대로 돌아간다.

서혜부탈장은 직접탈장과 간접탈장으로 구분되는데, 직접탈장은 성인형, 간접탈장은 소아형 탈장으로 장이 들락날락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가끔 '감돈'이라 하여 장이 빠진 후 복강 내로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 장의 세포나 조직이 부분적으로 죽는 괴사에 빠지게 된다. 이때는 돌출 부위에 압통이 생기고, 장 폐색 증상(복통, 오심, 구토, 발열)이 발생하게 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내에서도 복강경수술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복강경수술은 복벽을 1cm이하로 절개하여 그 속으로 복강경을 삽입해 탈장낭을 분리한 후 인공막을 삽입하는 것이



[서혜부탈장 환자의 복강경 수술 모습]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

Q. 수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는 '탈장대' 라는 것을 차고 생활하기도 했지만, 이는 전신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마취가 어려운 분들이 착용했다. 이제는 국소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은 시기적으로 계속 발전해왔고, 종류로는 탈장낭결찰술, 후복벽보강술, 인공막삽입술, 복강경수술 등이 있다.

소아탈장은 선천적으로 생긴 탈장낭을 제거하는 수술인 탈장낭결찰술로 충분하며, 비교적 간단하다. 나머지는 성인탈장 수술방법으로, 처음에는 후복벽보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수술 후 복벽이 당기는 불편감이 있어 인공막삽입술로 당김감을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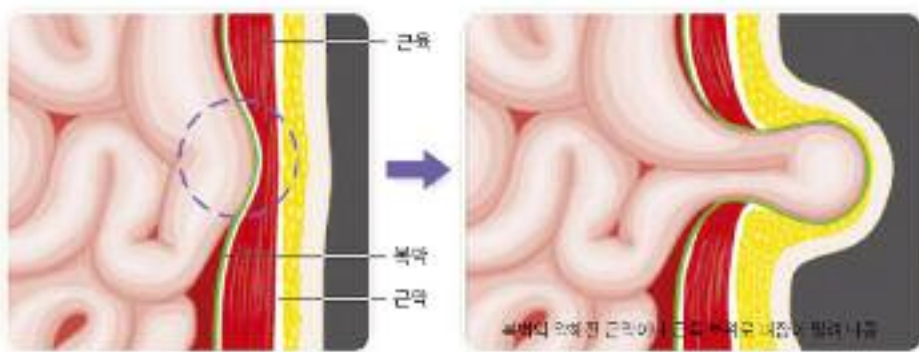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내에서도 복강경수술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복강경수술은 복벽을 1cm이하로 절개하여 그 속으로 복강경을 삽입해 탈장낭을 분리한 후 인공막을 삽입하는 것이

다. 상처가 적어 수술부위가 당기는 불편감이 현저히 줄고, 미용적으로도 탁월하며, 탈장이 시작되는 복강 내에서의 탈출을 방지시키므로 가장 확실하게 탈장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Q. 녹색병원 탈장클리닉이 좋은 점?

한국의 녹색병원 외과 3인의 전문의는 한국내에서 복강경 탈장수술이 도입된 초창기부터 복강경 수술기법을 시행해 왔다.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강경수술의 종류인 복막의 접근법(TEP), 복강내 접근법(TAPP)을 모두 다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과 달리 신속한 수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진비가 없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술 받을 수 있다.

휴람-녹색병원 해외의료사업팀장은 탈장을 가지고 있거나 의심가는 해외동포분들께 상담을 통해 검진-진단-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를 추천한다.



[탈장의 발생 기전]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일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영.미.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이치, 학교/유학생/여행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김민희,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韓최초

홍상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주연... 3월 개봉

(서울=뉴스1스타) 손미혜 기자 = 배우 김민희가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은곰상)을 수상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김민희는 이날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On the Beach at Night Alone)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은곰상 가운데 하나로 한국 배우가 이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칸·베니스를 포함한 3대 국제영화제에선 앞서 배우 전도연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김민희는 수상 소감에서 "홍상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받은 기쁨은 모두 홍상수 감독 덕분"이라며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고 말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여주인공 '영희'가 유부남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진 뒤 독일 함부르크와 한국 강릉 등을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는 김민희와 유부남 영화감독 홍상수의 '불륜 논란'과도 유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감독은 2008년 '밤과 낮', 2013년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 이어 3번째로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특히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이번 영화제에서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 작품상이 아니라도 어떤 상이든 수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은 헝가리 출신 일리코 엔예디 감독의 '온 바디 앤드 소울'(On Body and Soul)이, 남우주연상(은곰상)은 토마스 아르슬란 감독의 영화 '헬레 나히테'(Helle Naechte)의 게오르크 프리드리히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내달 국내 개봉 예정이다.

yeoulim@news1.kr

'프리즌' 3월23일 개봉, 한석규X김래원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프리즌'이 개봉일을 확정 짓고, 교도소 안과 밖을 넘나드는 죄수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담은 2차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오는 3월23일 개봉하는 '프리즌'은 감옥에서 세상을 굴리는 놈들, 그들의 절대 제왕과 새로 수감된 전직 꼴통 경찰의 범죄 액션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2차 포스터에서는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교정·교화하는 곳이라고 믿었던 교도소가 100% 알리바이를 보장하는 완전범죄 구역으로 탈바꿈한 '프리즌'의 과감한 설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도소 문밖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죄수들의 선두에서 눈빛만으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과시하는 절대 제왕 익호(한석규 분)

와 거친 남성미를 풍기는 전직 꼴통 경찰 유건(김래원 분)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행동대장 효표(조재윤 분), 양아치 건달 장길(신성록 분)을 비롯한 죄수들을 호위하듯 주변을 경계하는 비리소장 강소장(정웅인 분)과 경례 하는 교도관들의 모습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익호에 대한 궁금증을 불리일으킨다.

한편 "세상이 가둔 놈들, 세상 밖을 갖고는 다"라는 카피와 사복 차림으로 익호를 뒤따르는 전략 브레인 김박사(김성균 분), 행동책범모(정석원 분)의 모습은 교도소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죄수들이 펼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 시킨다.

aluem_chang@news1.kr



'도봉순' 박보영X박형식X지수 괴력 로맨스는 처음이지?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뽕 뚫리게 하는 드라마다. 봉순이가 나쁜 놈들을 박살낸다."

연출을 맡은 이형민 PD는 '힘센여자 도봉순'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다.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없다는 명료한 설명. 과연 '도봉순'은 어떤 매력을 어필할까.

'힘센여자 도봉순'은 선전적으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타고난 '괴력녀' 도봉순(박보영 분)이 게임업체 CEO 안민혁(박형식 분)과 정의감에 불타는 신참형사 인국두(지수 분)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세 남녀의 힘겨루기 로맨스를 그린다.

괴력의 소녀와 '뚝기'를 지닌 게임업체 CEO. 설정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로맨스다. 연출을 맡은 이형민 PD는 "뽕 뚫리게 하는 드라마다. 봉순이가 나쁜 놈들을 박살낸다. 힘이 센 사람들이 나쁘게 구는 사회이지 않나"고 애정을 표현했다.

'도봉순'은 박보영의 2년 만 복귀작이다. 전작인 '오 나의 귀신님'과 캐릭터가 겹친다는 시선도 있지만 박보영은 이를 자신만의 강점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 또 박보영은 "작품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 대본이 1번이다. 기회, 여건이 된다면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아직은 어리니까 해볼 수 있는 걸 많이 해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박형식, 지수는 그런 박보영의 사랑스러움에 대해 "주변 또래 남자배우들이 부러워한다" "실제가 더 사랑스럽다" "천사 같다" "남자들의 로망이지 않나"고 말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즐거운 촬영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던 대목이었다.

박형식, 박보영 로맨스뿐 아니라 박형식, 지수의 브로맨스도 매력을 발할 예정이다. 이 PD는 "박형식, 지수가 너무 친해서 박보영이 왕따 같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박보영은 "두 분을 볼 때마다 제 눈이 호강하고 있다. 둘이 잘 지내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급성골수염으로 팬들의 걱정을 받았던 지수는 "몸 상태는 좋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JTBC는 금토드라마 시간대를 기존 저녁 8시에서 밤 11시로 변경한다. '힘센여자 도봉순'의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다. 특히 금요일 밤에는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등 인기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 포진해 있다. 그럼에도 이형민 PD는 "한 번만 보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이유 있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과연 박형식 박보영 지수의 '괴력' 로맨스는 어떤 모습일까. 24일 밤 11시 첫 방송.

hjk070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2월 13일 ~ 2017년 2월 1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3.8%
2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5.7%
3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4.6%
4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21.5%
5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0.6%
6	KBS1	KBS9시뉴스	17.5%
7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6.8%
8	KBS2	해피선데이	14.5%
9	SBS	정글의법칙N코타마나도	13.9%
10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3.2%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	KBS2	TV소셜(저 하늘의 태양이)
4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5	MBC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6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7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8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9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0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비가와 (Rain)	소유, 백현
02	YESTERDAY	블락비
03	노래	Zion.T
04	봄날	방탄소년단
05	Rookie	레드벨벳
06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7	에라 모르겠다	BIGBANG
08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9	Complex (feat. G-DRAGON)	Zion.T
10	기다렸다가	다이내믹 듀오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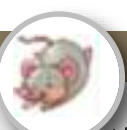
		6		4		7	8	
		5			8			
	8		7				2	1
	1			8		4		
2				6				5
		8		3			1	
3	5				4		7	
			3			1		
	6	1		5		3		

2월 26일 - 3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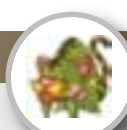
쥐띠 |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효과는 적은 이득에 그치지만 길게 내다보고 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금전 상태도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호전이 됩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6, 3일 길일, 27, 2일 주의.



소띠 | 한 계단씩 차근차근

● 운수: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계단만 있다 생각하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길게 끌지 않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평소 때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개나 중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7, 1일 길일, 28,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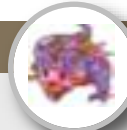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범띠 | 눈에 띄기 쉬운

● 운수: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때입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도 같이 다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8, 4일 길일, 26, 1일 주의.



토끼띠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 운수: 주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 금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도 잡게 되겠습니다. ● 애정: 자식 같은 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 4일 길일, 27,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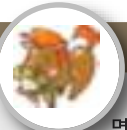
용띠 | 하면 된다는 신념과

● 운수: 막힌 것 같고 답답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 금전: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욕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성취욕이 강해집니다. 수입과 관련해 좋은 조건의 일이 생기겠습니다. ● 애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4일 길일, 28,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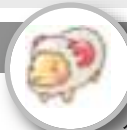
뱀띠 | 정확하게 말해야

● 운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끌어들이는 사람이 도리어 일을 더디게 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과욕을 부리다가는 지금까지 이룬 것마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 애정: 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상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7, 3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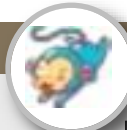
말띠 |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 운수: 집이나 사업체와 관련해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다면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오니 실속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 애정: 사랑의 계절에 춘삼월이 왔으니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4일 길일, 27, 2일 주의.



양띠 |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 운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처세를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당장은 자신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 애정: 짜증나게 하고 다들 만한 일이 있더라도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큰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4일 길일, 28,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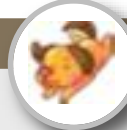
원숭이띠 | 다음 기회로 미뤄야

● 운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 금전: 원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합니다. 더 나은 조건이나 가격대에 살 수 있을 것이다. ● 애정: 머리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포기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2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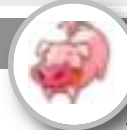
닭띠 |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 운수: 예감이나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오는 일을 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 금전: 망설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살다보면 종종 오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3일 길일, 2, 4일 주의.



개띠 | 만족도가 높으니

● 운수: 전문가나 경험자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으니 흐트러진 상태에 있게 됩니다. ● 금전: 맘을 흘려서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 애정: 연애할 상대를 만나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어 갑니다. 맞혀져가면 설레거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1일 길일, 2, 3일 주의.



돼지띠 |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 운수: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손해만 부릅니다. ● 애정: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지만 가족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3일 길일, 26, 4일 주의.

'완벽한 아내' 고소영X조여정, 특급 워맨스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완벽한 아내' 고소영, 조여정의 포스터가 베일을 벗었다.

KBS2 새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극본 윤경아/연출 홍석구)는 세입자와 건물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심재복(고소영 분)과 이은희(조여정 분)의 포스터를 22일 공개했다.

포스터에서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있지만, 표정은 속내를 알 수 없어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의상부터 액세서리까지 극과 극의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는 재복과 은희. 재복이 의상부터 귀걸이까지 하얀색으로 통일했다면, 은희는 온통 검은색이다. 각자 보면 고급스럽고 도도하지만, 합쳐 보면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 철저히 상반됐다.

해당 포스터는 지난 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촬영됐다. 얼굴이 겹쳐야 느낌이 산다는 주문에 가까이 붙은 고소영, 조여정은 프로답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묘한 분위기를 완벽히 살려냈고,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서로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관계자는 "오늘(22일) 공개된 포스터는 함께 있으면 묘한 재복과 은



희의 관계를 담아냈다"며 "재복과 은희는 전체적인 캐릭터 컬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 때문에 재복과 은희가 만날 때마다 시청자 여

러분들 역시 유쾌하면서도 긴장되는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hjk0706@news1.kr

'청순+섹시의 진수'

수지, 남다른 청바지 자태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수지가 청바지 자태를 과시했다.

수지는 23일 공개된 2017 S/S 시즌 '수지 데님' 화보에서 베이직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선보였다.

'수지 데님'은 아시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5가지 핏을 고려해 탄생

한 청바지다. 수지는 프로모션 화보를 통해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의 진수를 보여줬다.

한편 수지는 최근 솔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제)에 출연한다.

ppbn@news1.kr

태연, 첫 정규앨범 트랙리스트 공개 '무려 13곡 수록'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태연이 타이틀곡 'Fine'(파인)으로 돌아온다. 오는 28일 발매되는 태연의 첫 정규앨범은 타이틀곡 'Fine'을 비롯해 음반에는 특별 수록되는 보너스 트랙 '기억을 걷는 시간'까지 태연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낸 13

트랙으로 구성됐다. 이번 앨범은 특별히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된다.

'Fine'은 감성적이면서도 폭발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얼터너티브 팝 곡으로, 이별 후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한 가사로 이뤄졌다.

태연은 21일부터 5일간 정오와 자정에 정규 앨범 수록곡 음원 일부와 새로운 콘셉트로 변신한 모습이 어우러진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한 편씩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킬 예정이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배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백선생3', 요리왕 돼봐유

(서울=뉴스스타) 강희정 기자 = '집밥 백선생' 백종원이 돌아왔다. 양세형 남상미 이규한 윤두준이 새로 백종원의 제자로 합류해 '요리왕'을 꿈꾸고 있다.

2015년 처음 방송된 '집밥 백선생'은 백종원의 요리 지도 아래 제자들이 집밥 요리를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하는 얘기를 그린다. 두 시즌 동안 다양한 레시피와 만능간장, 만능된장, 만능춘장 등 생활밀착형 팁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이다.

'만능~' 시리즈에 대해 백종원은 "요리 안 하던 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면 편해요' 알려드리려고 이름에 '만능'이 붙은 거다. 폭발적인 반응에 걱정도 많았다. '만능간장' 같은 경우엔 저도 집에서 만들어 놓고 쓴다"며 "방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간단하게 해야 겠더라. 그래서 또 '만능' 뭔가를 만들었다. 시청자 분들이 '만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더라. 이번에는 한번 '만능'을 소개하면 그 뒤에 또 쓰실 수 있게 하려고 활용법을 많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원은 "남상미 수준이 지난 시즌 김국진과, 이규한 수준이 지난 시즌 정준영과 비슷하다. 지난 시즌 장동민, 정준영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게 윤두준이다. 양세형 같은 캐릭터는 이제껏 없었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과연 새 제자 4명은 어떤 캐릭터로 안방을 찾을까. 매주 화요일 밤 9시 40분 방송.

hjk0706@news1.kr



티보플레이 2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MBC	불어라 미풍아
2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3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KBS	다시 첫사랑
5	MBC	행복을 주는 사람
6	SBS	사랑은 방울방울
7	KBS	빛나라 은수
8	SBS	피고인
9	KBS	김과장
10	KBS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티보플레이 2월 3째주 신규 방송

1	SBS	특별 대선주자 국민면접
2	KBS	하숙집 딸들
3	CJ	집밥 백선생 시즌3
4	CJ	내 귀의 캔디 2
5	CJ	갯잇뷰티 2017

티보플레이 2월 3째주 최신 영화

'하숙집 딸들' 첫방송 여배우들 솔직함 합격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여배우들이 예능 고정 출연을 맞아 가감 없이 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14일 밤 11시10분 처음 방송된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하숙집 딸들'에서는 이미숙, 박시연, 이다해, 장신영, 윤소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격적인 하숙집 운영에 앞서 이들이 만나고 친해지는 과정이 그려졌다. 숨기는 것이 많을 것이라 예상됐던 여배우들은 생각보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냈다. 이미숙의 거침 없는 입담을 바탕으로 장신영과 박시연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을 비롯해 이다해는 세브과의 연애 에피소드를 살짝 공개했다. 장신영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꺼내자 박시연은 "아직 이혼 소송 중이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윤소이는 별칙인 상하의 빨간 내복을 입고 당당하게 워킹을 했다.

ppbn@news1.kr



보스톤권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향집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한중일 3개국 전통악기의 만남

Across East Asia: 판 프로젝트 콘서트

가민 피리, 생황

잉취 왕 중국 얼후

카오루 와타나베 시노부에, 타이코

심운정 장구

제프 로버츠 중국 구친



3월 4일 (토) 오후 8시

브랜다이스 대학교 슬로스버그 뮤직센터


415 South St. Waltham, MA

일반 \$20/시니어(55+) \$15/학생 \$5

www.brandeis.edu/tickets

781-736-3400

주최: 브랜다이스 대학교 MusicUnitesUs_{SM}

후원: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뉴잉글랜드 지방(보스톤 주변)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날이다. 사계절을 만나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음이 생각을 거듭할수록 축복이라 여겨진다. 우리는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다. 이 부러움마저도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되면 더욱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내게 있는 것마저도 찾지 못해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다. 자신과 늘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보면 곁에 소중한 것(사람과 사물과 장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귀한 것들을 큰 것을 찾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가끔 나는 부엌 창문에서 내다보이는 풍경들에 한참을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 바라다보이는 나무를 정해놓고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눈여겨보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 감동을 넘어 연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잎이 푸르려 싱그럽을 선사하고 가을이면 고운 단풍들로 유혹하며 겨울이면 백색의 세상으로 가득 품어주는 것이다. 물론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계절마다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를 좋아하지만, 그 이전에 내 눈 안에 가득 들어온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봄이 오는 소리에
눈을 뜨니 이미 겨울 속에서
산속 생명들은 하나 둘
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산 아래서 산 위의 것을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챙겨 오르면 될 것です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 먼 산만 바라보며
마음을 보채고 가슴을 조아리며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마음 안에서 가슴 속에서
염려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발걸음 옮기며 오르면 될 것です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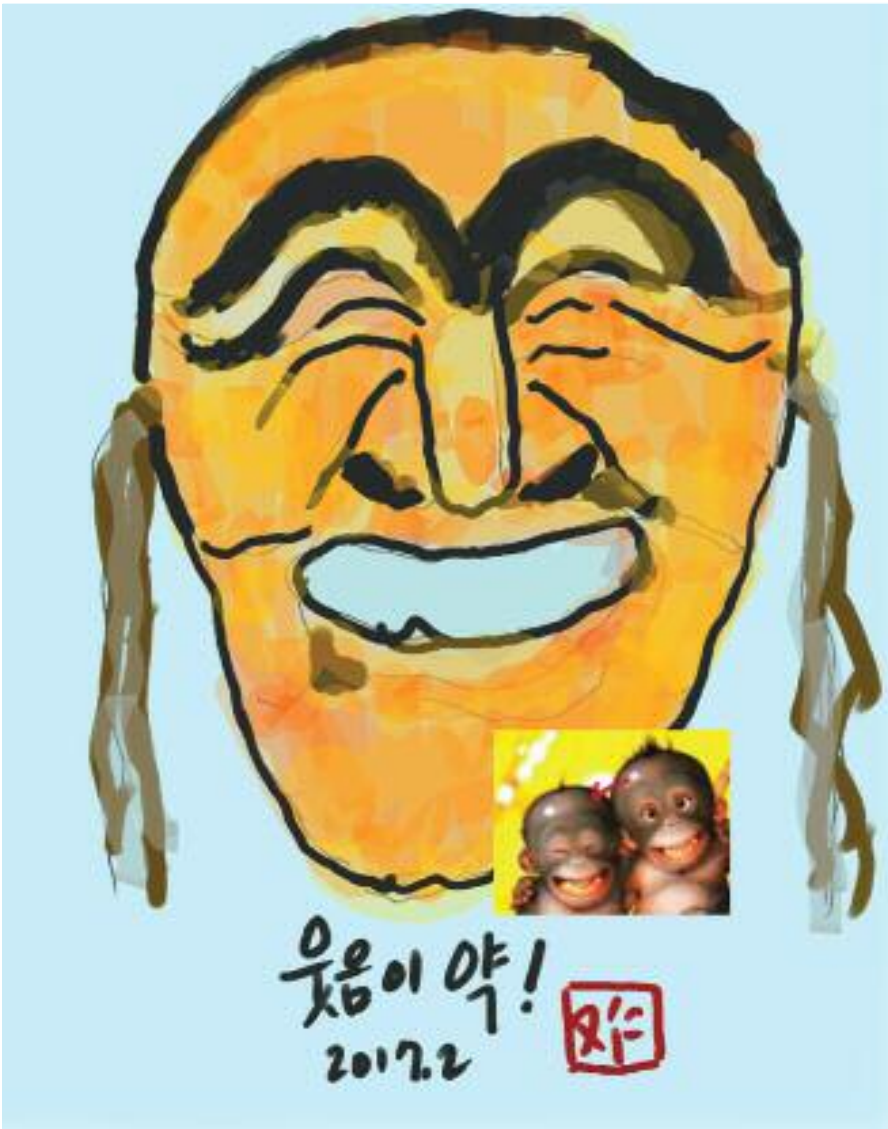
산 아래서 산 위의 것을
마음을 보채고 가슴을 조아리며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ですよ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작은 나를 만난다.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하며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과 피조물인 인간을 잠시 생각한다. 또한 산을 오르는 내내 가파른 산길 굽이굽이마다 힘겨워 헉헉거리는 고비고비마다에서 인생을 생각한다. 산을 오르내리며 내 삶의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책임감을 배우는 것이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작은 나를 만난다.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산은 높아지고 나는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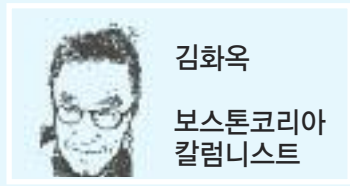
산은 언제나 계절마다에서 변함없이 한 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품어주는데, 산을 오르며 이것은 좋으니 저것은 싫으니 더우니 춥니 타박을 하는 것은 바로 산을 오르는 나 자신이다. 참으로 어이없음이다. 제 기분

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니 말이다. 이렇듯 기분이 좋아 산을 오르고 기분이 나빠 산에 오르다 보면 그 좋고 싫음의 감정은 사그라들고 어느새가 정상을 향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이다. 누가 가라고 해서 산을 오른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 해서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님을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해본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간에 제 기분에 따라 좋고 싫음을 저 홀로 정해놓는 것은 아닐까 싶다. 상대방은 산처럼 여전히 한 자리에 있는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아닐는지 잠시 생각해 머물러 본다. 서로 대화의 시간이 적고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이라도 속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어 서운하고 소통이 어려운 것이다. 서로 서운한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으니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고 결국 불통에 묶여 있는 것이다. 불통의 열쇠는 결국 신뢰이고 소통의 통로는 대화인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보톡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치료, 발기부전까지, 800여 가지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소량을 쓸 경우에 해당된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어렵진작하고만 있다. 타임지紙 기사내용이다. 'Facial-Feedback Hypothesis. 사람들의 얼굴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기분이 좋아야 웃는건 당연한데,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말은 쉽지만 헛갈린다.

고왔던 추억도
쓰러린 설음도
이제는 더러더러 흘리고 살자
(하영순, 한바탕 웃음으로)

독毒이라면 복어알이 우선 떠오른다. 복어알은 보톡스와 다르기는 하다. 그런데 이걸 잘못 먹으면 마비증상이 먼저다. 먹을 것 귀찮게 복어알 잘못 끓여 먹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바로 그것이다. 자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곤 했다. 연전年前에 일본에서 상담商談중이었다.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복

어 잘하는 집이라 했는데, 구운 복어 내장이었던가 상床위에 올라왔다. 나는 맛보지 않았다. 일단 비위에 맞지 않았다. 보기에 허연 색 고기 조각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거다. 맛을 본 동료가 말했다. '입술에 감각이 없어지더라.' 음식점 벽엔 당연한듯, 복어취급증이 붙어 있었다.

겨울철 복자리는 맛이 그만이더니. 너무 뜨거워 입천장이 데일망정 따들리며 먹어 치웠던 기억이 삼삼하다. 정종 대포가 곁들여져 금상첨화였다. 그래서 그랬던가. 먹고 마시고 나니 개운했고 행복했더랬다. 혹시 복어에도 행복해지는 약효가 있는건 아닌가? 복어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을수 있겠다.

웃자. 웃어야 한다. 더러더러 흘려 보내며 그저 웃는 거다. 보톡스가 주는 충고다. 행복하시라.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라니 (유희기 8:21)

1. Time, Jan.16, 2017
2. 이론은 오래전 찰스 다윈이 원조란다.

보톡스란 주사약이 있다. 전직 한국대통령이 주사를 맞았다고 한 그 약이다. 지금은 흔한 모양이다. 뉴로톡신이라 일컫는데, 신경독해물神經毒害物이다. 고기 통조림에서 오래되어 상하면 생긴다. 당연하지만, 이걸 잘못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주 소량

이면 피부주름을 없앨 수있다. 미용에 사용되는 거다. 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대박났다. 부작용으로 소송을 당하기 해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 주사약이 우울증 치료에 약효가 있다. 재미있는 발견이다. 그만큼이 아니다. 편두통, 요통, 사시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Sport LCD Cluster Display, 10-speaker audio

MSRP, As shown, MS21629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099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16-speaker audio, 8-speaker XM, 10-speaker audio, 10-speaker audio, 10-speaker audio

MSRP, As shown, MS211525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8" 24-speaker audio, 18" 24-speaker audio, 18" 24-speaker audio

MSRP, As shown, MS211995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Sporty design,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8-speaker audio, Fog Lights

MSRP, As shown, MS21625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ing Blind Spot Warning, 8 inch color touchscreen, Apple CarPlay, Android Auto, 18-speaker audio

MSRP, As shown, MS21625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8" 24-speaker audio, 18" 24-speaker audio, 18" 24-speaker audio

MSRP, As shown, MS21625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Sporty design,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8-speaker audio, Fog Lights

MSRP, As shown, MS21625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꼭 큰집에 살아야 하나? 특히 땅 넓은 미국땅에서 밑에 글은 제 친구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쓴 글이었습니다. 돈에 혐오감을 갖고 계신분들 읽어 보시고 돈 많이 버셔서 좋은집들 사세요.

처음 직장생활을 했던 당시, 나는 완전 순박한 이상주의자였다. 내가 혐오하던 돈(도날드)이라는 동료가 갖은 아부와 책략으로 우리부서의 상사로 승진했을 때 정말 암담했다. 도날드는 책에서나 볼수 있는 기회주의 잔머리의 대가였다. 스스로 깨끗이 공개 살겠다고 생각하던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그 친구의 결정이 사 사건건 실망스러웠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누구든지 밟고 올라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그의 행동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는 소인의 모습이었다. 불만이 가득한 나를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돈은 나를 주중에도 골프장, 저녁 때는 술집 등으로 데려가면서 자신의 편으로 매수하

려 하였다. 그러한 그의 노력에도 나는 굳은 심지를 고집했고, 결국 경쟁회사의 스카우트제의를 받아들여 회사를 옮겼다.

재미있는 것은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야 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은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니면 나도 타락한 사회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시간을 돌려서 그 시간으로 돌아갔다면, 그의 오른팔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우스운 표현으로 '돈을 좋아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종종 듣는 말 중에 '돈 걱정 좀 안하고 살고 싶다'이다. 사실 '돈' 하면 거의 90%의 사람들이 나쁜 기분을 생각한다. 늘 부족하고, 모으기 힘들고, 남들은 항상 나보다 더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느낌은 딱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돈'이라는 단어가 좋은 느낌이 저절로 느껴지지 않으면 결국 나쁜 느낌에 속하는 것이다. 돈 때문에 걱정 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좋은 느낌으

로 생각한다. 그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다. 가난하기로 유명 했던 황희 정승의 일화 어디에도 돈 때문에 본인이 걱정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도 황희 정승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11를 가진 사람이 \$1를 기부하기는 쉬워도 \$999,999있는 사람이 \$1를 기부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고 한다. \$999,999 있는 사람은 \$1을 더 모아서 \$1,000,000를 채우고싶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옛 상사 돈(도날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나의 직장 생활이 쉬워질수 있었을 듯이 돈에 대한 느낌도 좋은 쪽으로 바꾼다면 돈에 대한 관계도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돈은 물 같아서 한곳에 모아 두면 썩고, 계속 흐르게 해야 하고, 두손에 모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있다고 본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돈이 많이 흐르게 깊고 넓게 골을 파야하는 것 뿐이다.

'돈을 사랑하려고 노력 하면 회사생활도 편해지고 일상생활도 편해집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7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1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김대문의 화랑세기(이종욱 대역), [공은 애통해했다. 공 역시 여위고 병들어 7일 만에 죽었다. 금진은 이에 공을 품에 안고 발을 굴르며 말하기를, “나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어찌 살겠는가?” 했다. 공이 서서히 눈을 뜨고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내가 어찌 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상했겠습니까? 살아서 어머니의 큰 은혜를 갚을 수 없었는데, 죽어서 저 세상에서 갚겠습니다” 했다. 대개 공은 원래 미진부공의 딸인 미실(美室)을 사모했다. 미실 또한 공을 좋아했으나, 태후의 명으로 세종공(世宗公)에게 시집을 갔다. 이로써 태후의 마음을 열었다. ... 어머니에게 간하지 않았고 형을 따랐다(형은 숙흥종이다). 청조가(靑鳥歌)를 지었다. ... 청조는 미실을 가르킨다. 공은... 웃과... 노래를 지어 보낸 까닭이다. 공公...

남도들이 이화공을 복립할 것을 청하니, 이화공이 말하기를 “...의 사위이다. 사다함은... 여러 골부 중 세종전군(世宗殿君) 같은 이는 없다.” ...의 무리들이 이에 세종전군을 세워 풍월주로 삼았다.]

사다함은 사우(死友)로 결의한 친구 무관랑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나 애통해 하다가 7일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 못다 핀 청춘, 용맹하고 도량 깊은 화랑 중의 화랑 사다함의 그때

나이 고작 열일곱살이었다. 화랑세기에는 무관랑의 죽음이 비교적 상세하게 사다함의 어머니인 금진과의 사통에 괴로워하며 월성의 담을 뛰어 넘다가 구지에 빠져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무관랑이 병들어 죽은 것으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사다함의 어머니 색녀 금진은 아들의 죽음에 앞서 자신의 무분별한 색사를 후회했지만 그녀의 색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효성이 깊은 사다함은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면서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않고 죽어서도 갚겠다고 다짐하였다.

미실, 당대의 절세佳人, 사다함의 첫사랑, 그녀는 대원신통의 인맥(姻脈)과 정략으로 진흥왕 사후 진지왕을 옹립하였고 또한 자신의 ‘왕후거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지왕을 폐위까지 하였다. 그리고 권력을 쥔 그녀는 화랑도의 풍월주를 없애고 원화제도를 부활하여 스스로 원화가 되기도 하였다. 외할머니 옥진과 할머니 삼엽궁주 그리고 삼엽의 어머니 벽화의 아름다움과 영특함을 타고 났으며 그들의 색훈(色訓)과 색도(色道)로 빚어진 미실은 진흥왕과 그의 맏아들 동륜태자 그리고 둘째 아들 진지왕, 손자 진평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왕과 귀족들을 색공으로 대원신통의 인맥을 확장하였으며 정계의 중심에서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렀다. 미실이 세종과 결혼하여 입궁하기 전에는 사다함의 연인이었다. 서로의 첫사랑은 지고지순하였다. 하지만 이사부를

따라 가야정벌(562년)에 지원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후 돌아오니 사랑하는 연인 미실은 세종전군의 부인이 되어있었다. 이때 미실에게 지어 마친 노래가 청조가(靑鳥歌)이다.

미실이 지소태후의 명으로 결혼한 세종, 세종에 관하여 삼국사기(또한 삼국유사에도 교차 검증이 된다)와 화랑세기에는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6세 풍월주 세종편에서 다룰것이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세종(世宗)과 노리부(弩里夫)는 동일인이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구해)의 장남이며 구형왕이 귀순할 때 신라의 진골 귀족이 되었다. 즉 김유신의 큰 할아버지이다(김유신의 아버지는 김서현이고, 할아버지는 김무혁이며, 구형왕 김구해가 증조할아버지이다).

하지만 화랑세기에는 세종과 노리부가 다른 인물로 나온다. 노리부는 진흥왕의 비 사도왕후의 오라비이다. 즉 두사람이 동부동모라면 박영실과 옥진궁주 사이의 아들이지만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진흥왕이 죽고 진지왕이 즉위할 때 미실과 사도가 밀약으로 진지왕을 옹립하였다. 그 밀약이 지켜지지 않자 이번에는 폐위를 하였다. 그때 미실과인 세종과 설원은 화랑을 장악하였고 노리부는 귀족 집단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진평왕을 차기 왕으로 세웠다.

세종은 진흥왕의 이부동모(異父同母)로 나온다. 즉 진흥왕의 부모는 입종(사부지)과 지소이고, 세종의 부모는 태종(이사부)과 지소이다.

193) 청조가, 사다함이 가야정벌에 참전하여 큰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니 사랑하는 연인 미실은 세종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이 때 지어 마친 노래이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 위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공발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나의 공발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지 또 갈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부질없이 눈물짓게 하며 마음 아프고 여위어 죽게 하는가/ 나는 죽어 무슨 귀신 될까. 나는 죽어 신병 되리/ 전주에게 날아들어 보호하여 호신되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전군부처 보호하여/ 만년 천년 오래 죽지 않게 하리.’

이에 앞서 사다함이 가야정벌 위하여 출정할 때 미실이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한 노래가 있다.

‘바람이 불다고 하되 임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고 하되 임 앞에 치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아보고/ 아흐, 임이여 잡은 손을 차마 물리라노.’

이 ‘송사다함가’와 ‘청조가’가 화랑세기(6세 풍월주 세종편)에 전하는 두 수의 향가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BOSTON NEHEMIAH INSTITUTE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제2회 BNI 선교의 밤 공개강좌

한국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1876-1910

(Multiple Origins of Korean Protestantism, 1876-1910)



강사: 옥성득 교수

(Rev. Dr. Sung-Deuk Oak)

옥 교수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장신대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보스톤 대학교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UCLA 한국학과 석좌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저술활동과 강연으로 한국 근대사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ECC Chapel,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7:00

강좌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Babysitter가 제공되며, 강좌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봄학기 과목 편성표

Central클래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래스 : 나사렛사람의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3/13-4/17(5주)	Central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신앙	김성천
7:30-10pm	4/24-5/22(5주)	Central	교회, 하나님의 학교	김학수
화요일	3/14-4/18 (5주)	North	선교의 실제와 전망	합동강의
7:30-10pm	4/25-5/23(5주)	North	간격을 뛰어 넘는 말씀: 구약을 인용, 언급 그리고 echo하는 신약	안창선

*고난 주간은 휴강합니다.(4월10일과 11일)

*선교의 실제와 전망은 합동 강의를 합니다. 박찬수목사(Coordinator), 송평구목사, 이재호목사, 유경렬목사, 김택식목사, 이순우목사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工 (공)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生命)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天父)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If you really know Me, you will know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 요한복음 14:6,7.

목사(牧師)이면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씨는 23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자신을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성직(聖職)자 이름만 더럽힌 게 아니라 정치인도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무성의원은 22일 인(印)위원장을 향해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저급한 독설을 하고 있다”며 “성직자(聖職者)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하여 ‘인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특급호텔 식당을 즐긴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그분(김무성 의원)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했다가 배신했다”며 “나는 선(善)한(두 얼굴의) 야누스이고, 잘못되게 변하는 사람은 나쁜 야누스”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또 ‘교회로 돌아가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회 은퇴한지 꽤 오래됐다. 이름만 목사지 현직은 떠났다”고

인 위원장은 “내가 호텔가서 밥을 먹은 적은 있지만 즐겨 본적이 없다.”

비대위원장하며 가장 힘든 게 호텔가서 밥 먹는 것이라며 “나는 갈비탕, 꼬막 비빔밥을 좋아한다. 내가 당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체중이 5kg 빠졌다. 호텔식당을 즐겼으면 몸무게가 빠졌겠나”고

“법인카드도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책임을 막무가내 식으로 발뺌하는 북한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비난한다.

현지 매체, ‘말레이메일 온라인’은 세리 나스리 아지스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이 23일 북한을 ‘강대국 또는 악(惡)한 나라

(Rogue Nation)’라 비난했다. 북한 대사관 앞에서 “Respect Malaysia : 말레이시아를 존경하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나스리 장관은 “북한이 계속 김정은 이복형(異腹兄)의 죽음을 두고 말레이시아의 음모라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이 국제 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또 말레이시아 당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형사 수사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자국민들에게 “북한 방문 잠정 중단”을 권고했다.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어떤 불가능한 짓도 할 수 있으니 말레이시아인들은 거기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히사무진 후세인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은 우리 경찰이 잘 처리중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인에게 암(癌)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다.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落傷)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한국인 질병 부담 순위에서 낙상은 7위, 간암과 위암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노인이 되면 근육과 뼈가 약해져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 1이 해마다 한번 이상 낙상을 겪는다.

최근 보스톤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연례모임에서 미국 미주리대 마조리 스쿠빅 교수 연구진은 “센서로 노인들의 발걸음을 분석 - 3주전에 낙상 사고를 분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노인전문 거주지에 사는 85세 이상 23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했다. 걷는 속도가 초당 5.1cm 줄어들면 3주내 낙상 사고를 당할 확률이 86%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속(步速)에 변화가 없으면 낙상확률이 19.5%에 그쳤다. 걸음걸이가 둔해지면 낙상위험이 4배로 커진다.

공공 : 匠 신장 - 장인 공. 이 간단한 세획이 하늘 길(天道)과 땅의 길(地道)을 연결하는 영생도(永生道)를 정확히 그림으로 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 (The Way of Jesus Christ)’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시한 글자. 이 글자를 표시한 ‘匠 신장’ 역시 위(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1:象之數之從 상지수지종’ 또는 ‘上下相通 상하상통 - 아래위로 통할 신’으로 ‘위의 하늘 길과 아래 땅의 길’이 서로 연결 돼 있다는 뜻. 따라서 공 자는 선명하게도 ‘하늘 길과 땅의 길을 잇는 길’을 표시한다.

덧붙여 설명하면 예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人子)로 지칭’ 하셨는데 이 ‘工 + 人 = 天’으로 人子; 사람의 아들이면서 신자(神子)로 죽음을 벗어난 영생(永生)을 증명 - 영원히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된 ‘永生人: 영원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自由)함을 얻은 인생’임을 증거한다.

이 영생의 전제 조건이 있다. 주(主)님의 숨결(ノ)이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영생의 숨결이 하나님 삼위(성부, 성자, 성령)의 숨결을 갖 추어야 한다.

이 삼위의 숨결 “采: 取也 취할 채”는 하나님 삼위(‘ ’)의 숨결(ノ)이 인자(人子)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뜻한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숨결인 사랑: 愛(애)는 하나님 삼위 세 분의 숨결로 댈한 “예수님의 마음(心: 마음 심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애심(愛心)은 ① 오래 참고 ② 온유하며 ③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④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⑤ 자기의 유익을 추구치 아니하며 ⑥ 성내지 아니하며 ⑦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⑧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⑨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⑩ 모든 것을 참으며 ⑪ 모든 것을 바라며 ⑫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It does not dishonor others,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but rejoices with the truth.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 And now these three remain :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 고린도전서 13:4~7, 13.

이처럼 성경의永生하는 원동력은 죄(罪)없으면서 “죄가 있다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가를 원동력으로 하는 “공행만이 인자(人子)와 동행하는 천(工+人子)행이 가능하다는 것.

해서 人子 예수 그리스도와와 工人(天) 없이는 天行 또는 천당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확인케 해 주신 것.

따라서 工人 즉 “천국 입성”을 성서의 신약에서만 5회를 되풀이 한다.

① 마태복음 9:37 ② 같은 복음 10:10 ③ 같은 복음 20:1 ④ 누가복음 10:7 ⑤ 디모데후서 2:15...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신자(信者)들이 영생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순간마다永生車の 애유(愛油)를 점검하라신다.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백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am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4)
- 한국의 소득 신고 해야 하나

이번 주는 세금신고 때마다 고민하는 '한국의 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해외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한층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FBAR/FATCA)은 최근들어 많은 국민들에게 한국의 소득을 더이상 누락할 수 없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왜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국에 신고를 다시 하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납세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미국의 세법은 ①시민권자나 ②외국인(Alien) 중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a)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b)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자(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여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자는 한국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게 됨

그런데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신고하면 이중 납부가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가 있어,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낸 세금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미국에 낼 세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100을 벌여 한국정부에 \$25의 세금을 낸 김한국씨가 \$100을 미국에 신고하여 미국세금이 \$30이라면, 김한국씨는 이미 한국에서 \$25를 냈기 때문에 미국에는 \$5(= \$30-\$25)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세금이 \$20이라면, 이미 한국에

서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낸 세금은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부담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소지자도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편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일부는 '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아닌데 한국에서 번 소득까지 미국에 신고해야 하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세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세법도 유사하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다른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멸시효가 연장됨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한국의 소득을 누락했다면 적게 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Penalties)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소득의 규모나 사기(Fraud)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6년으로 연장되거나 아예 소멸시효가 없어 영원히 IRS의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IRS의 과세권이 소멸됨)

관련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국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아마 그 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FBAR와 FATCA규정에 의해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재무부와 IRS에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4)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2009년 1월부터 8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투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 신문에 게재해온 내용을 정리하여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를 출간했습니다. 미시간 한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투자의 개념과 편견을 비롯해 실패하는 투자와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설명과 뮤추얼 펀드, 어뉴이티, 부동산 투자, 채권투자, 학자금 투자와 은퇴계획, 상속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명덕 저자는 2월 5일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 출판 기념 강연회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투자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해서는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개별적인 회사, 어뉴이티,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 등의 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전했다. 그가 권장하는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 비용이 최대한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고 특정 회사를 선택

하기보다는 투자 종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가장 권하는 투자 상품은 인덱스 펀드다.

그는 저서에서 복리 이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일 어떤 분이 65세에 은퇴할 때 백만 달러가 필요하다면 이자를 8% 받는다고 가정하고 매달 얼마씩을 저축해야 할까? 현재 나이가 25세라면 \$286, 35세라면 \$671, 45세라면 \$1,698, 55세라면 \$5,466을 저축하면 된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 90년 동안 10%라는 사실이다.

그는 또 나이가 이미 60, 70대라도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30년을 사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1.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2. 대박만을 기대한다 3. 이웃 사람 시선에 민감하다 4. 참을성이 없다 5.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6. 목적이

없다 7. 비상사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8. 남이 돈 관리를 잘해주리라 기대한다 9.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다 10.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부자로 이어지는 투자를 하려면 낙관적인 마음, 잘못된 편견과 경험에서 탈피, 대박 투자를 포기, 남을 의식하지 않기, 모르는 투자 않기, 투자하며 발생하는 전체 경비 이해하기, 막연한 믿음은 금물, 전체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50가지의 족집게 재정 규칙을 설명했다. 그중에는 • 60세 이상인 분은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다. • 신용카드의 빚은 매달 100% 갚아야 한다. • 최근에 많은 수익률을 올린 투자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자. • 생명보험은 투자가 아니다. • 15년보다는 30년 주택융자를 얻는 것이 더 좋다. • 집을 투자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 어뉴이티는 좋은 투자 종목이 아니다. • 영주권자 배우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401(K)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 주택융자 보험을 내지 말자. • 최소한 수입의 15%는 투자하자. • 나

의 재정설계사의 충고가 그들에게 먼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자 •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자 • 돈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돈 관리 방법을 아이들에게 남기 자들의 주제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투자 초보자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본 저서는 많은 독자에게 '제대로 하는 투자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책 구입은 www.bfkorean.com으로 주문하면 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MW LEE, CPA P.C.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회계·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간접 경험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양국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2월 넷째주)

계속된 반이민 정책의 연속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지침(Guideline)을 국토안보부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서류미비자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며, 지역 공권력에게 서류미비자 체포의 권한을 부여하고, 서류미비자 수용소를 신축하며, 난민과 망명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결국에는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주주장창 외쳤던 '범죄자 외국인'(Criminal Aliens)으로부터 미국국민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번 지침은 분명 많은 계층에게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환영하는 계층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세력들(Law Enforcement Officials)은 오랜기간 이민자 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체포권을 요구해 왔으니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범죄와 싸우는 분들이나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몇몇 이민자들이 행하는 반사회적 범죄들을 많이 봐왔고 실제로는 이들 덕분에 사

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먼저, 과연 이민자들에게서 행해지는 범죄가 미국 전체에서 행해지는 범죄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번 지침을 보면 이나라의 모든 범죄는 이민자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듯 합니다.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가 미국 전체에서 행해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미국 시민들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 개의 범죄 중 하나의 범죄만 막는다고 이사회가 범죄로부터 지켜질까요? 초등학교도 아는 답입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마약 등을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우리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이러한 이민 범죄자들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한 범죄자도 이민자면 추방을 더 간단히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역대 행정부들도 이민자 범죄 특히 서류미비자 범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들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려는 많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난 행정부들의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Balance)입니다. 지난 행정부들의 이민자 범죄자들에 대한 정책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해왔지만 동시에 무고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도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무고한 이민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범죄자들에 대한 지침에 왜 난민이나 망명자들의 미국 입국이나 난민/망명자 지위 획득을 되도록 막으라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난민이나 망명자의 지위로 미국에 입국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극히 소수들입니다. 대부분의 난민이나 망명자들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입니다. 이들을 지원하면 이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까요? 조그만 동네에서나 가족간에도 조금 힘든 사람이거나 가족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들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만 잘살면 과연 계속 우리만 잘살게 될까요? 다른 나라도 아닌 국제사회의 지도급 국가인 이나라가 이런식의 인색한 정책을 한다면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까요?

이번 지침은 지난 무슬림 7개국 국적자 입국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분쟁의 여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목표가 좋은 나쁜든, 내놓는 정책과 지침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나라를 이끄는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민자 여러분 힘내세요! 분명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은 합법이고 어떠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로 빼앗기지 않을겁니다. 현재 합법적 신분이 없는 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약하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돕겠습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주위사람들에 의해 이나라가 지금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추방한다는 것인가요? 난민과 망명자들이 다 환영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환영하고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난민과 망명자들을 지지합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습니다.

WELCOME REFUGEES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고민들이 많아지면 대처하기에 좋은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크레딧 교정 이해 2-3월, 7월, 11월 검토 그리고 Dispute

지난번에는 이 Dispute(이의제기)의 이해를 돕고자 미국의 사법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Adversarial System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대적 제도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가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신용대출관련한 기록은 크레딧 보고 기관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크레딧 교정은 영어로 표현을 빌리자면 Dispute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분쟁기회입니다. 많은 여신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신용점수를 고려하다 보니 이런 액트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Dispute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레딧 교정에 대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관련근거입니다. 즉

, 7년간의 자료들을 통틀어서 내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기록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제시를 하지 못하면 삭제해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각각의 렌더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을 관리합니다. 일단 렌더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해당 렌더에게 관련근거제출을 요청하여 있으면 남겨두고, 없으면 삭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근거없이 삭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세상만사가 개인이 뜻하는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기에 관련근거를 토대로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 삭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할 부정적인 크레딧 기록(Derogatory Summary)에는 차지오프(Charge Off), 콜렉션(Collec-

tions), 파산기록(Bankruptcy Account), 민사소송기록(Public Records), 연체기록(Delinquency), 조회기록(Inquirie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신용점수 감점 요인(Negative Items) 이라고 하며 감점 요인이 많을수록 당연히 크레딧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크레딧 교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에 의해 3대 크레딧 뷰로에서는 1년에 한번 씩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마다 (예: 3월-에퀴팩스, 7월-익스페리언, 11월-트랜스유니온) 하나씩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ttp://www.annualcreditreport.com>)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할 혹은 부정적인 내용을 발견하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Dispute 편지를 보내어 관련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

한 과정은 법원의 절차를 따르는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하기에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쟁편지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으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이중 성공적으로 분쟁제기 해서 삭제하는 경우FICO 점수로는 50-100점 정도 향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분쟁제기를 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콜렉션 기록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록에 대해 7년간 기록으로 남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기록에 대해 분쟁제기를 하여 관련근거를 입증할 수 없는 기록은 삭제를 하도록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칼럼 내용 관련 문의: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벨링턴 오피스)

SONGLAWFIRM

송동호 종합로펌 최강 이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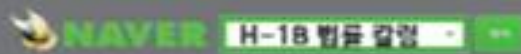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위대인, 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위대인, 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니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러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러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러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러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러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I,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교육경험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차게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설어캠프 활용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얻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9

